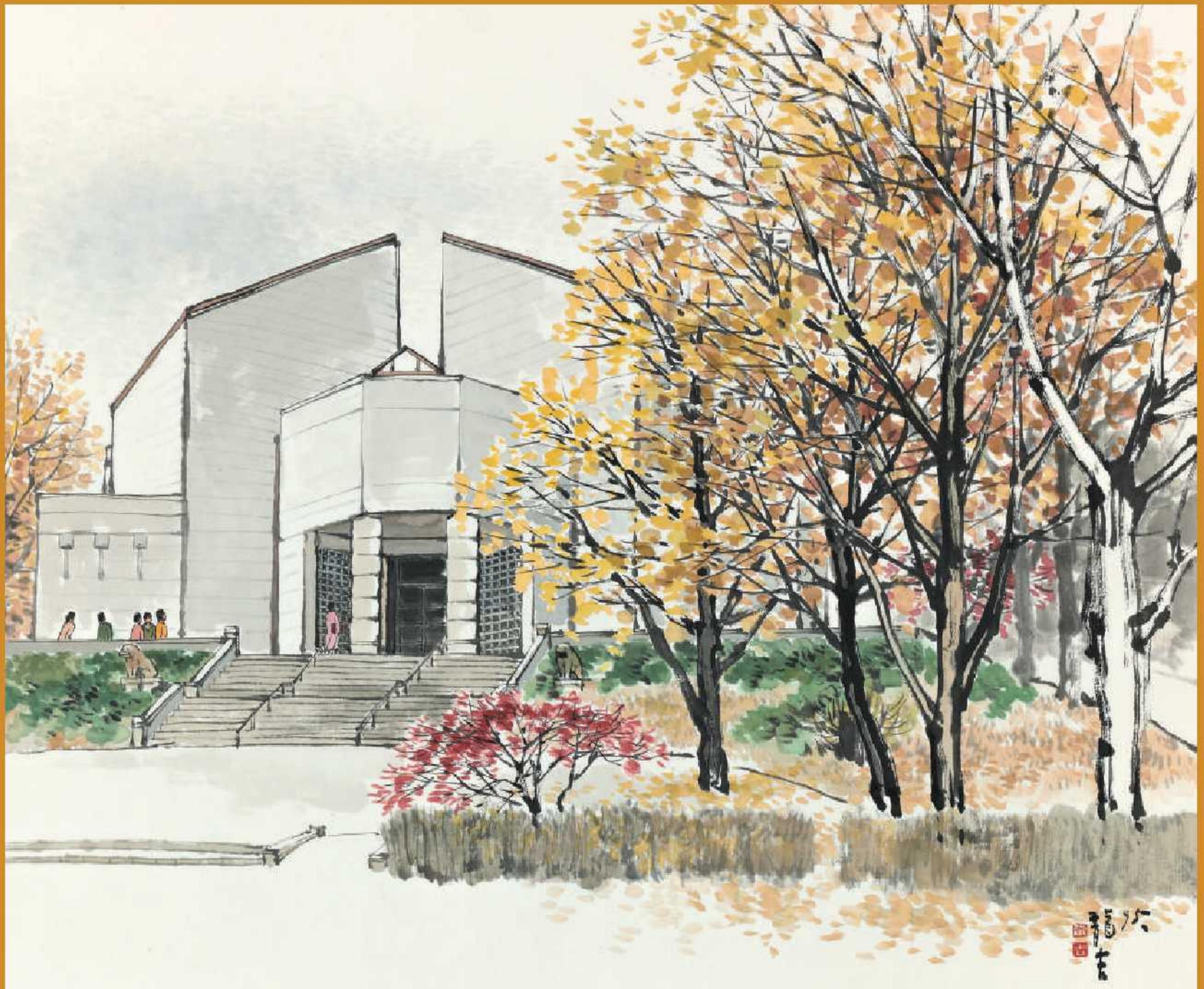


이화동창

사진으로 만나는 이화 130년의 기억 /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10

14

26

이화동창

2016년 가을 제144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62x72.5cm, 1995)

- | | |
|---------------------------------|-------------------------------------|
| 02 사진으로 만나는 이화 130년의 기억 | 세계를 꿈꾸는 이화의 어제와 내일 |
| 10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모교에서 즐기는 동심의 축제 한마당 |
| 14 이화의 이곳저곳 | 유닛형 기숙사 시대를 연 E-House |
| 18 총동창회 소식 | 8월 세 차례 임시임원회 열어 외 |
| 19 선교부 소식 | 해외 선교사들 모교 방문과 상반기 위로회 |
| 21 모교사용설명서 | 모교 안 맛집 탐방 |
| 24 축하합니다 | 김숙희 동창 외 17인 |
| 26 나의 스승 나의 제자 | 황병기 음대 한국음악과 명예교수와 제자들 |
| 30 자랑스런 이화의 얼굴 |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초대 공동대표 한경희 동창 |
| 34 선교지에서 온 편지 | 15주년을 맞이한 번역 프로젝트 |
| 36 만나고 싶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원장 기영화 동창 |
| 39 모교 소식 |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외 |
| 44 대학(원) 소식 | 사회과학대학 외 |
| 48 과(학부) 소식 | 영어영문학과 외 |
| 50 지회 소식 | 남가주 지회 외 |
| 61 동창 근황 | 황종례 동창 외 |
| 68 동창이 퍼낸 새 책 | 『아흔 무렵에』 외 6권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의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송은미(유교 85,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윤혜숙(커미부 86)
전세영(사학 94)
김민희(국문 9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6년 가을 144호

발행 2016년 10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
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6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세계를 꿈꾸는 이화의 어제와 내일

‘한국 최초’를 기슴에 품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이화는 올해로 창립 130년을 맞이하였다. 이화의 130년 역사에는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시작이자, 한국 여성사의 중요한 흔적이다. 변화와 도약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앞만 보고 내달리기보다 한 걸음 쉬며 이화의 어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푸르른 녹음이 한창인 ECC 주변은 과거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눔과 섬김, 봉사의 진선미 교육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5월의 이화 창립 기념제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메이퀸 행사를 통해서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화역사관 및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총동창회 소장 자료를 기반으로, 이화의 재학생과 동창, 교직원과 이화가족이 보낸 사진을 통해 이화의 지난 모습을 추억해본다.

이화 교정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동의 작은 기와집에서 시작해 1930년대 신촌 캠퍼스로 이전한 모교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꿈꾸고 있다. 모교 교정의 지난 자취를 되돌아본다.

1. 이화학당이 설립된 지 6개월 만에 완공된 한옥교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집’이었다. 건평 200평 규모에, 건물 한가운데 마당이 있는 큰 기와집이었다. 이 건물은 현재 신촌 캠퍼스에 복원되어 이화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화정신을 구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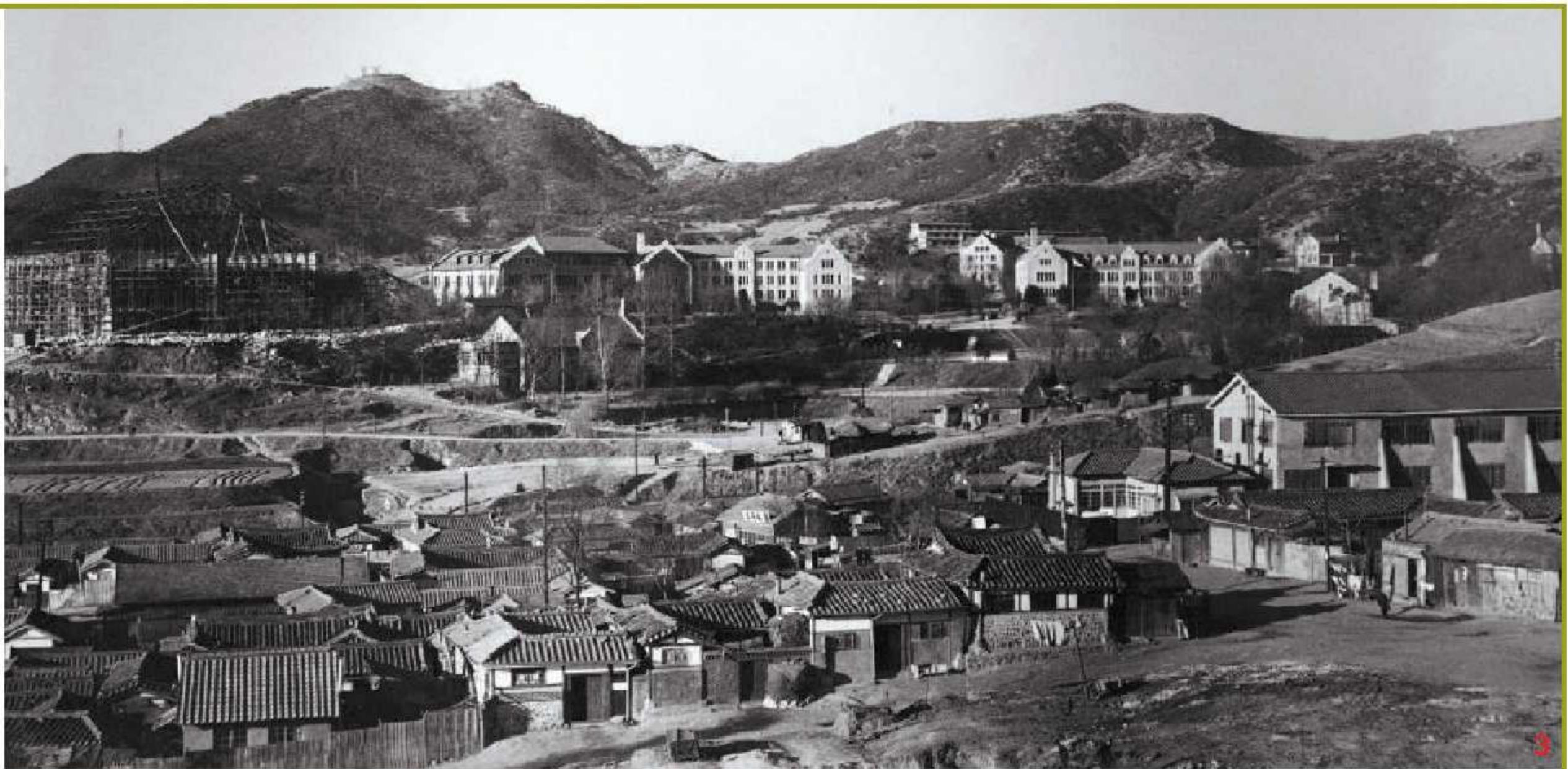
2. 초기 이화학당 학생들은 전부 기숙사 생활을 했다. 프라이홀의 기숙사에 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자 1932년 한옥 건물 황화사를 지어 기숙사로 사용했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1



2



3. 부산에서 환도한 후(1955년) 신촌 캠퍼스 전경. 대강당 건축 모습과 이화교 건축 전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4. 1937년 영학관 앞에서 사진을 찍은 동창들(홍복유, 백국희, 장영숙, 김정옥, 김갑순 등). (사진제공: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5. 6·25 전쟁 당시 이화는 부산에 피난교사 30개 동을 짓고 1951년 9월 1일 개교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6. 2002년 9월 25일, 이화교 복개공사를 하면서 정문과 이화교 해체작업을 하게 됐다. (사진제공:장남원(증문 85, 현 미술사학과 교수 및 박물관장) 동창)

7. 친환경 첨단 지하 캠퍼스 ECC.



진선미의 이화 교육

이화는 전인교육을 앞세우며 학생들의 지식과 체력 향상에 힘을 썼고,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는데도 앞장섰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이화의 130년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에도 기도의 숨결이 닿지 않은 적이 없었다.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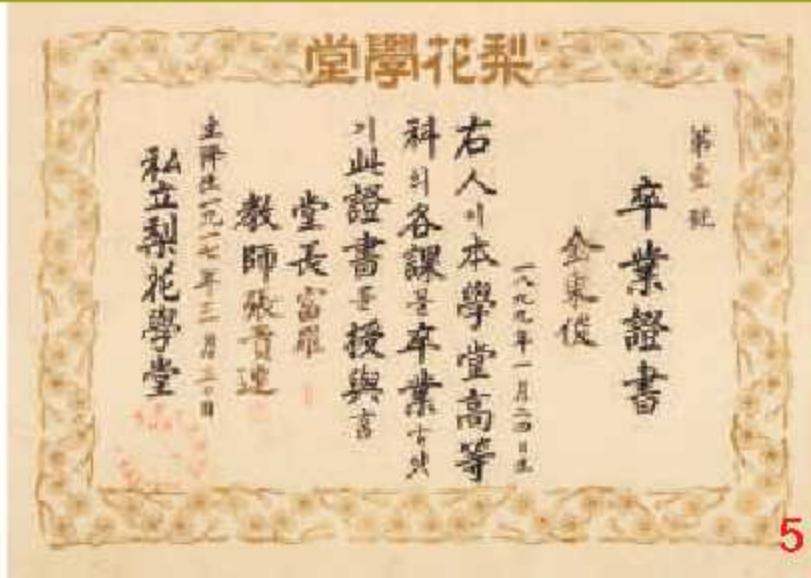
1. 월터 선생은 겨드랑이가 드러나는 짧은 저고리와 가슴을 옥죄는 긴 치마의 전통 한복을 조끼하려 치마의 체육복으로 개량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한복은 이화학당 졸업생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2. 봄이면 전차를 타고 전교생이 동대문 밖의 명성황후의 능인 흥릉으로 소풍을 다녀왔으며,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갔다. 초기 학생들은 1년에 두 차례 소풍 갈 때와 매주 일요일 정동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사진제공: 이화역사관)

3. 이전(梨傳) 마크를 단 체육우수자들. 전교생의 체력 향상을 중시한 교양체육은 이화의 전통이자 전문학교 교육의 특징이었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4. 팔복동산에서의 기도 모임.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이화의 정신을 기리며 학생들은 교내 곳곳에 기도처를 마련하였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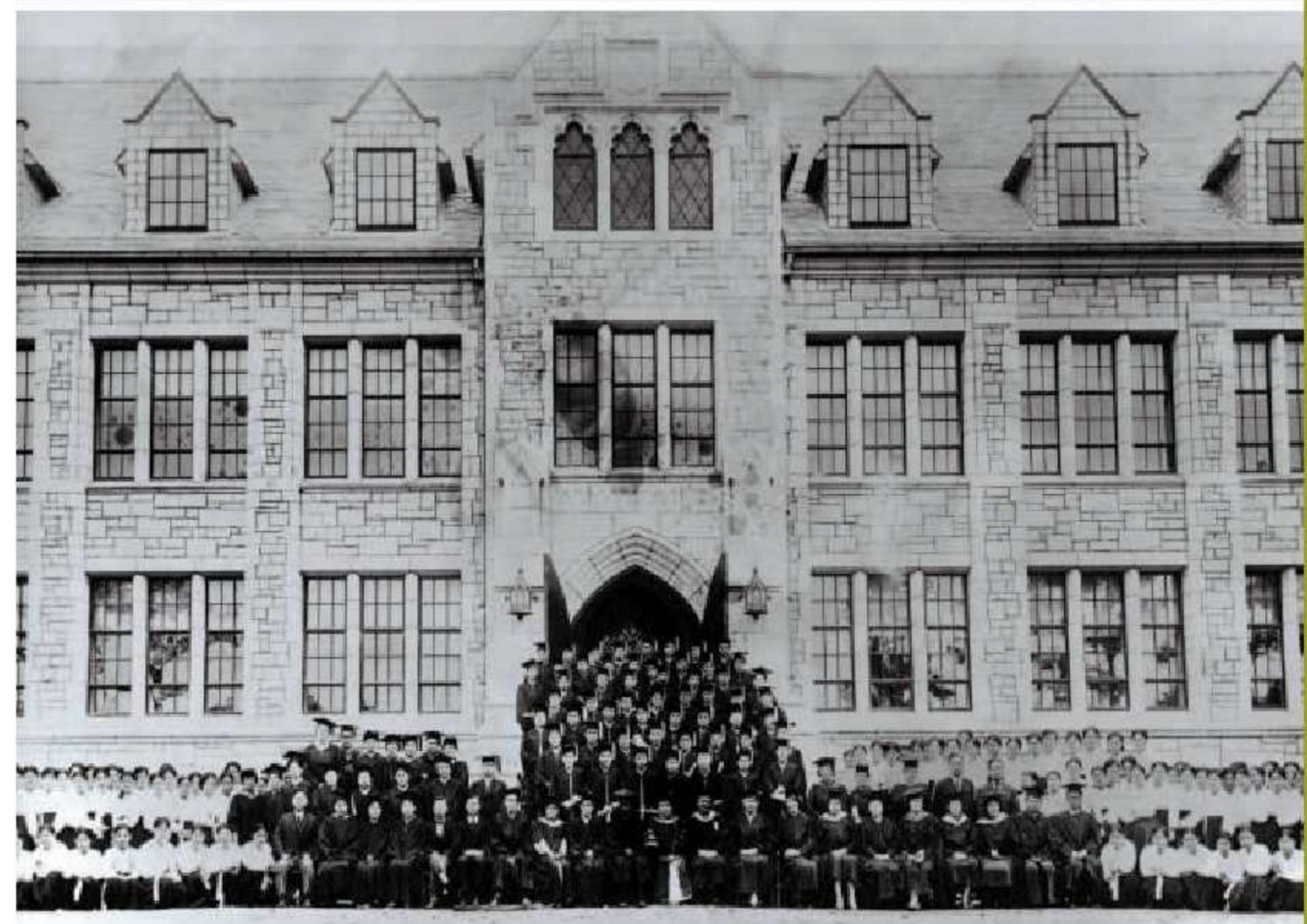


5. 김동준 동창이 기증한 1917년 이화학당 고등과 졸업증서. 가장자리에 금색으로 '梨花學堂' 글씨를 상단에 적고 나뭇가지에 활짝 피어난 배꽃을 묘사한 도안을 반복적으로 구성하여 장식했다.(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6. 1915년 대학과 2회 졸업식이 열린 정동 예배당 입구. (사진제공:이화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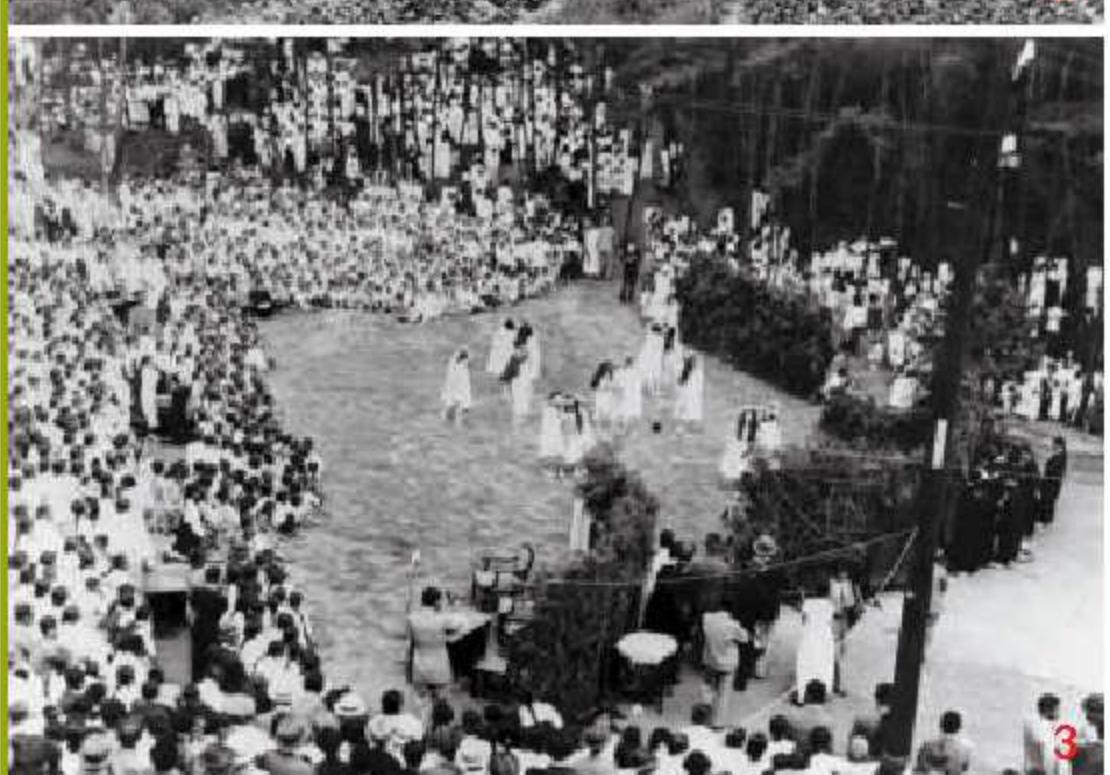
7. 1936년 신촌 캠퍼스로 이사와 본관 앞에서 처음 치른 이화여자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의 졸업식. (사진제공:이화역사관)

8. 1970년대 동창회 기념관(현 생활환경관) 1층에 자리 잡은 대형 학생식당. 시험 시간이면 도서관 대신 시험공부 장소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사진제공: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화의 창립기념행사

이화는 매년 5월 31일 창립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문화 행사가 흔치 않던 시절, 이화의 창립 기념행사는 이화동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1. 운동이나 체조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들이 운동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때문에 이화 학당 창립 기념행사의 매스게임이나 체조 등은 장안의 화제였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2. 1935년 5월 31일, 이화창립 49주년이 되는 해에 본관, 음악관, 대강당(현 중강당), 체육관이 준공되어 봉헌식을 가졌다. 신촌 캠퍼스 봉헌식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3. 창립 50주년에는 기념곡 '강'을 야외에서 공연했다. 아펜젤러 교장이 구상하고, 이희승 교수가 집필, 김신실 선생이 안무를 맡은 공연이었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4. 1956년 창립 70주년 행사 때 교정을 가득 메운 인파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5. 1986년 5월 31일 이화100주년 기념식 장면. (사진제공:이화역사관)

6. 2016년 5월 18일 이화여대 풍물패연합의 대동제 개막공연. (사진제공: 한지혜(교공) 재학생)



메이퀸과 올해의 이화인

이화학당 창립 22주년에 창립자 스크랜튼 선생에게 생화를 엮어 만든 왕관을 드린 것이 메이퀸의 시작이다. 이후 1927년부터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 중에서 메이퀸을 뽑게 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압박으로 인해 메이퀸을 뽑지 못했다. 그러다 1956년 창립 70주년에 다시 부활한 메이퀸은 언론과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메이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열되자 동창과 학생들 중심으로 폐지론이 불붙기 시작했고, 1978년 5월 마침내 폐지되기에 이른다. 한편 1966년 김활란 선생을 첫 ‘동창여왕’으로 뽑은 이후 매해 창립 기념일에 ‘동창여왕’을 추대했던 총동창회는 1990년 이 행사를 폐지하고, 1991년부터는 각 과 동창회가 추천하는 이화인을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하고 있다.



7. 1915년 5월의 여왕으로 뽑힌 미스 처치. 초기의 메이퀸은 학당에 공이 큰 선교사 선생 중에서 뽑았다.

8. 1956년 창립 70주년 기념 한복. 흰 바탕에 초록색 배꽃무늬가 있는 이 한복을 창립 기념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입었다.(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복영(법학 60) 동창 기증)

9. 1930년 새 교사 부지로 정해진 신촌 소나무 숲에서 창립기념행사를 열었다. 여왕 최신덕(문과 31) 동창은 활옷을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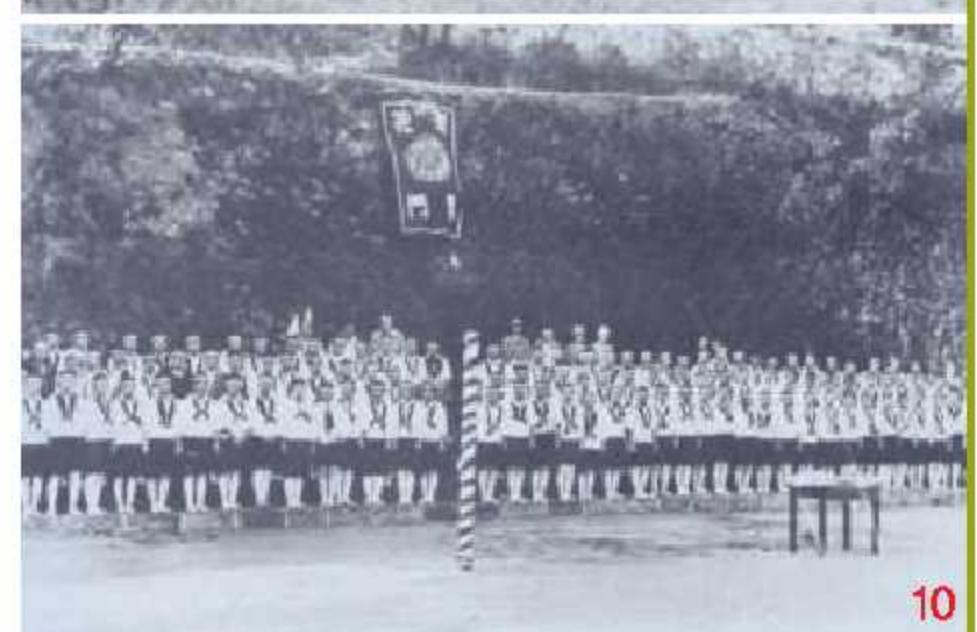
10. 일제강점기에 메이퀸을 선출하지 못하게 되자, 가을 운동회에서 좋은 자세와 바른 걸음걸이를 가진 학생을 자세의 여왕으로 선발했다.



8



9



10

11. 1966년 창립 80주년 메이퀸 유중근(영문 67) 동창의 대관식 장면.

12. 1991년부터 총동창회는 각 과 동창회 추천을 받아 ‘올해의 이화인’을 추대하고 있다.



11



12

한국 사회 속의 이화

이화인은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정신을 한국 사회 곳곳으로 퍼뜨렸다. 한국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 이화인은 함께했다.

1. 여름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농촌계몽활동에 나선 학생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2. 1968년 학생회는 복장검소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3. 1973년 유신반대 데모대의 선두에 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당시 김옥길 총장의 모습. (사진제공:이화역사관)

4. 3·1 운동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1920년 이화 7인 전도대는 민족의 영적 구원과 대각성을 촉구하는 전국순회전도에 나섰다. 이화학당 시절 이화인들은 복음전도와 농촌계몽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5.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모금함 운동. (사진제공:이화역사관)

6. 한일회담 반대시위에 나선 이화인들. (사진제공:이화역사관)



이화교표 어떻게 달라졌을까



중학과 교표(1914년)



이화전문학교 교표(1930년)



일제강점기 이화전문학교
교표(1939년)



해방 후 교표



현재 교표

이화교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이화 교가는 1906, 1914, 1918년에 각각 지어졌으나, 이화의 이름을 담고 있는 교가를 새롭게 구성한 것은 1929년 『이화』 창간호에 ‘이화의 노래’로 실리고부터이다. 지금 부르고 있는 이화 교가의 가사는 1930년에 정인보 선생이 지었다. 정인보 선생은 국학자이며 교육자로, 이화전문에 부임해 한문과 조선문학을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작곡은 모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했던 안기영 선생과 메리 영 선생이 공동으로 하였다.



1절) 한가람 봄바람에 피어난 우리 / 성인이 이를 불러 이화라셨다 / 거룩한 노래 곱게도 나니 / 황화방 안에 천국이 예라

한강에서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서 5월에 태어난 이화의 창립을 뜻하며, 성인은 고종 황제를 뜻한다. 1897년 2월 고종 황제는 ‘이화’의 현판을 하사했는데, 이는 국가가 여성교육기관을 최초로 공인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황화방은 서대문 정동의 이름으로, 황화방 주변에 배꽃이 많아 이화라는 교명을 지었다고 알려졌다.

2절) 지조의 높은 의기 길고긴 내력 / 아령비 머다할가 지은이 우리 / 육부에 삼베 짜던 것 배워 / 덕행의 수로 온 대한 싸세

지조는 김유신의 아내이자 화랑 원술랑의 어머니인 지소 부인을 이야기 하며, 자녀를 의로써 키운 혼명한 여성을 상징한다. 아령비는 박혁거세의 부인 알영 왕비를 일컫는 것으로 일찍이 여성들에게 길쌈을 돌려해 일하는 여성상을 구현한 인물이다. 지은이는 효녀 지은을 일컫는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50명 중 여성은 단 두 명인데 이름까지 등재된 여성은 지은이 단 한 명이다. 마음이 따뜻한 인간으로서 인격적 덕성을 갖춘 진선미의 선을 기린다.

3절) 서거라 단닿거라 절조와 지개 / 한 사람 외오서도 내 일로 알자 / 하나님 느리 임하심같이 / 두리는 속에 광명이 쐬네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이화인상을 제시한 내용이다. 절조와 기개를 굳건하게 세우고, 정의를 지키는 데 마음의 의지가 변치 않아야 하며, 누구 하나라도 소외됨이 없이 큰마음으로 품는 사랑의 정신을 뜻한다. 또한 하나님의 온누리에 임하실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후렴) 이화 이화 우리 이화 / 진선미의 우리 이화 / 네 향기 널리 퍼져라 / 啊! 우리 이화

‘진’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하여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진실됨과 지혜로움을 말한다. ‘선’은 인격적 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었던 사랑의 지고지순한 정신이 이화 공동체로 성장해 인류평화를 실현하게 하는 사회정신이다. ‘미’는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아름다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을 뜻한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 사진 제공: 이화역사관, 이화여자대학교 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동창 개인 자료 / 교가 설명은 이배용 전 총장의 글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모교에서 즐기는 동심의 축제 한마당



이화동창들의 소통과 하나 됨을 위해 총동창회가 마련한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9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모교 교정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이화동창의 자녀나 손자손녀, 모교 교직원 자녀 중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넷 접수를 한 결과 173명(유치부 65명, 초등부 108명)의 어린이가 신청 접수를 마쳐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난해까지 5월에 열리던 행사를 올해부터 하반기로 옮겨 ‘가을의 이화가족 축제’를 기획한 총동창회는, 표현력을 발휘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며, 공간감이 살아 있고, 성실하고 즐겁게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을 초등부와 유치부로 나





청명한 가을, 모교 잔디밭에서 그림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

눠 부문별 5명씩 총 50명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그림 실력과 상관없이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모두에게 부상을 수여함으로써 참여한 어린이나 이화가족 모두 축제의 장으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그림도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온 가족 가을 소풍도 즐기고

5월이 푸르른 신록의 계절이라면, 9월은 맑은 하늘과 청명한 공기가 돋보이는 계절이다. 이날 아침 이화교정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대회에 참석한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재잘대는 목소리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첫 접수를 시작한 노경미(간호 02) 동창은 “큰 아이는 세 번째, 작은 아이는 첫 번째 참가예요. 수원에서 서둘러 왔더니 첫 번째로 도착했네요” 하고 말했다. 엄마 옆에 있던 맥승후(초등부) 어린이는 “2회 때 1등 ‘진상’을 받았어요. 이번엔 동생 승현이도 같이 왔는데 둘 다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웃었다.

지인인 김수현(초교 03) 동창과 김미현(경영 05) 동창은 각각 자녀 박정재(초등부) 어린이와 안형윤(초등부) 어린이와 함께 대회에 참여했는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들뜬 표정이었다.

손자 이은후(초등부)·이유재(유치부) 어린이의 손을 잡고 참여한 남성희(정외 74) 동창은 “매번 마감이라 참여하지 못



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서둘러 접수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손녀 박주원(초등부) 어린이 및 남편, 아들, 며느리까지 3대가 같이 왔다는 정춘희(약학 72) 동창도 “대회도 즐기고 모처럼 가족 소풍을 하게 되었다”며 즐거워하였다.

모교 교정 어느 곳에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인지 숨은 그림 찾기 하듯 교정 곳곳에서 그림 그리는 어린이와 그 가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대회의 또 다른 재미였다. 엄마와 할머니의 추억이 깃든 건물 앞에서 그림을 그릴 거라며 종종걸음을 옮기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푸른 나무 그늘 사이 숨어 있는 나무 벤치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꼬물꼬물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도 있었고, 미리 준비해 온 뜯자리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날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형과 누나, 언니와 오빠를 따라온 동생들은 꽃과 나무, 그 곁의 작은 생물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뛰어다니거나 따스한 햇볕에 잠시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자녀들과 함께 모교를 찾은 이화가족들은 옛 추억을 되새기며 청명한 이화의 가을을 즐겼다.

특히 이날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끈 것은 풍선 아트 코너. 대회 시작 전부터 줄이 이어져 끝날 때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다.

참석한 어린이 모두에게 상 수여해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심사위원장인 모교 조형대 교수 우순옥(서양 81) 동창, 모교 유아교육과 교수 홍용희(유교 78) 동창, 전 이대부속초등학교 미술교사 안지영(섬예 02) 동창을 비롯한 심사위원 및 총동창회 임원진, 대회에 참가한 173명의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1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주 총동창회장

2 심사위원장 우순옥 교수의 심사 소감

3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풍선 아트

4 심사위원들이 어린이들의 그림을 살피고 있다





제 5 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2016년 9월 24일(토) 오전 10시~ 오후 3시 / 장소: 이화교정, 대강당

후원: 주)모나미, 주)크라운 해태제과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1



2

1, 2 참가 어린이들이 단상에 올라 상을 받고 있다

3 점심도시락 준비에 한창인 총동창회 임원들 4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점심 도시락



3

4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림도 그리고 온 가족이 가을 소풍을 즐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하였다. 우순옥 심사위원장은 “창의성과 동심이 가득한 어린이들의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으며, 이런 기회를 통해 어린이들도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참가한 어린이 모두에게 상을 시상하기로 한 총동창회는, 올해도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을 유치부와 초등부 부문에서 각각 5명, 총 50명의 어린이에게 수여했고, 부문별 상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전원에게 ‘행복가득상’을 수여해 참가한 어린이 모두 수상 여부에 관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즐기도록 배려했다.

이 행사를 위해 (주)모나미에서 크레파스 200점과 선물세트 50점을, (주)크라운해태제과에서 제과세트를 협찬해주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유닛형 기숙사 시대를 연 E-House

정문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포스코관, 공대, 팔복동산을 지나 한우리집 정류장에서 내려, 바로 보이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하면 서로 마주보는 두 동의 건물을 맞닥뜨리게 된다. 2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막 입소를 끝마친 새 기숙사라는 사전 정보를 듣고 왔어도 국립공원에나 있을 법한 콘도 같은 E-House 앞에 서면 ‘정말 대단해!’라는 감탄사와 함께 그 규모와 시설에 다시 놀라게 된다. “기존 기숙사 시설과 E-House까지 합치면 모두 4,3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어서 수도권 학생들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죠.” 유세경(커미부 82, 커미부 교수) 관장의 말이다.

한국 최초의 여학생 기숙사로 출발

모교의 역사는 기숙사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화학당은 낮에는 학교로, 밤에는 기숙사로 쓰여서 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이 곧 기숙사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1897년 한옥 교사를 헐고 붉은 벽돌의 2층 양옥 교사인 메인홀을 지었다. 스팀과 전기가

들어오는 기숙사와 교실, 식당, 목욕탕을 갖추고 있어 당시로서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서구식 건물이었다. 12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화인의 민족의식이 짜른 곳이다.

1923년 완성된 프라이홀은 연령층이 비슷한 전문학교와 보육학교 학생들만이 입소할 수 있는 기숙사였고, 1932년부터 운영된 기숙사 황화사에서는 최초의 한국인 사감이 사생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1974년까지 기숙사로 운영된 진선미관

창한 정원 속에 자리 잡은 아담한 석조 건물로 총 85개 사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진관에는 가사과와 보육과생, 선관에는 음악과생, 미관에는 문과생으로 과별 배치하여 2~3명씩 함께 생활했다. 진선미관은 1974년까지 기숙사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이화인문과학원과 교수 연구실 및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촌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던 1936년 건축된 진선미관은 올

해방과 동시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지만 6·25 전쟁 빌발로 모교 역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해장, 은해장이라고 이름 지은 판잣집을 기숙사로 사용했다.

전쟁 이후 신촌 캠퍼스가 재정비되었지만 기숙사 인원이 늘어나 새 기숙사 건축의 필요성이 커져 1959년 지금의 포스코관 자리에 총 887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관 기숙사를 지었다. 공간 부족과 낙후된 시설 문제가 자주 거론되던 신관 기숙사는 1999년 현대식 설비를 갖춘 한우리집이 신축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그 후 2006년 국제회에 발맞춰 대학원기숙사, 이화·삼성국제기숙사가 정문 옆에 새롭게 지어졌고, 2012년에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제2 국제기숙사가, 올해 한우리집 C동과 E-House가 신축되었다.

입소자 자격에 따라 구분되는 이대 기숙사

모교의 기숙사는 크게 한우리집과 신축 기숙사 E-House, 그리고 국제기숙사(I-House)로 나뉘어진다.

팔복동산 옆에 자리 잡은 한우리집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9년 2월에 개관하였다. ‘크다, 함께하다’는 뜻의 한우리집이라는 이름은 당시 이어령 석좌교수 가 지어준 것이다. 학부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A, B동은 718명 을 수용할 수 있고, 2016년 2월에 개관한 C동(수용인원: 438 명)까지 포함하여 약 1,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솟을관은 한우리집 내에 있으며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준비 생 약 183명이 거주하고 있다. 매 학기 실시하는 입실고사 성적 우수자 또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중 국가고시위원에서 선발된 학생이 입소할 수 있으며 한우리집과 별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숙사는 2006년 8월 개관한 대학원기숙사와 이화·삼성국제기숙사, 2012년 2월 개관한 제2 국제기숙사, 2013년 8월에 개관한 별관 등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수용인원은 774명 이다. 별도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동창과 모교 교직원의 초청을 받거나 모교가 주관하는 학회, 세미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입소하려면 해외 교환학생은 온라인 지원서에 포함된 기숙사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국제교류처에 제출하면 되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려면 이메일로 예약하면 된다. 입소 조건은 각 기숙사마다 다르지만 한 학기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여름방학에는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3개 동으로 이루어진 한우리집



대학원기숙사와 이화·삼성국제기숙사 등을 아우르는 국제기숙사(I-House)

기숙사의 개념을 바꾼 친환경 건물 E-House

E-House는 최신식 친환경 건물로 2016년 8월에 개관했으며 모두 2,1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개념 기숙사이다. E-House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기존의 복도형 기숙사가 아니라 유닛형 기숙사라는 데 있다. 학생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4~10명의 사

생이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포함하여 설계한 것이다. 한 공간에 여러 개의 방이 있지만, 기숙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베란다가 있고, 개인 공간과는 별도로 공유 공간인 거실과 세 칸의 샤워실, 세 개의 화장실이 있어 마치 아파트에서 쉐어하우스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요즘 학생들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고, 대단히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함께하는 생활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점을 반영해서 E-House의 36% 이상인 781실이 1인실입니다. 개인의 고유성을 보장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정화경(수학 80) 부관장의 말이다.

하지만 기숙사는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배워가는 또 하나의 생활교육 공간이기도 하다. E-House 안에는 사생들이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고 룸메이트와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쌓아갈 수 있도록 소통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각 층마다 마련된 휴게공간 및 세미나실, 독서실, 명상실 같은 커뮤니티룸 등과 각종 문화행사가 가능한 SSG홀, 체력단련실, 기도실이 그곳이다.

E-House는 친환경 건물이다. 서울시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전기료 절약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 하나에서 페인트 한 통까지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건축되었다. 인터넷 세대의 요구에 맞춰 전관에 와이파이 지원이 돼 학교 포탈 아이디 하나로 24시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사생들이 기숙사 안에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도 또 하나의 이점이다.



유닛형 기숙사를 도입한 E-House

무인택배보관실(203동 지하 2층)과 출력, 스캔, 복사, FAX, PC 사용이 가능한 무인자동복합기, 새침방, 세탁·다리미실 등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사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두 곳의 식당은 신선한 재료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당 옆에는 사생들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주방도 빌려 있다.

“매점, ATM기가 있는 기숙사는 많지만 편의점과 문구점은 기본이고 아이스크림, 스무디 가게에다 제과점 겸용 커피숍까지 있다고 하면 다른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한우리집 사생회의 전 임원이기도 한 김다혜(시각디자인 13학번) 재학생의 자랑 섞인 말이다.

안전을 지켜주는 최첨단 경비 시스템

모교 안의 모든 기숙사는 관장과 부관장, 7명의 행정실 직원들이 꾸려나가고 있다. 입·퇴소 등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생들의 일상생활 점검에서부터 보안, 경비 같은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숙사의 모든 것이 이들의 몫이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4,000여 명이 넘는 사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데는 30명이 넘는 행정조교들의 도움과 초현대적인 관리 시스템이 한몫하고 있다. 행정조교들은 야간 당직도 하고, 매달 동을 바꿔가며 정기적으로 사생들의 생활을 점검한다. 학부생들의 통금 시간은 오후 12시이며, 사생들의 모든 출입은 학생카드인 전자식 스피드게이트로 체크하고 있다. 기숙사 곳곳에 설치된 CCTV 및 비상벨은 기숙사 안의 보안 상황을 점검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연결되는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만약의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해마다 두 차례 소방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서대문 소방서의 안전 교육을 받고, 밤 11시에 사생 전부가 근처 주차장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야간 대피 훈련으로 모든 사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사생들의 외부 이동을 위해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모교 총무팀이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하는 정규 셔틀버스가 끝나면, 통금이 있는 밤 12시까지 기숙사에서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기숙사의 주인은 사생이다. 행정실은 사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 1회 사생회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있다. 사생회 임원들은 사생들의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행정실은 이를 해결하고 사생들에게 협조사항을 전달하며 사생회의 정기적인 행사를 지원하거나 축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도 한다. 각 총장, 문화부장, 종교부장, 미화부장, 홍보부장, 회장단으로 구성된 사생회는 1년 동안 사생들을 대표해 기숙사 내 여러 행사를 기획, 준비한다.

E-House의 매일이 이대 기숙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며 유세경 관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사생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의 이해와 훈련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것, 130년 전 기숙사가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기숙사로 만들어가야죠.”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8월 세 차례 임시임원회 열어

총동창회는 8월 임시임원회를 세 차례 열고, 평생 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과 관련된 모교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이화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모교의 교수·직원·학생·동창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9월 임원회에서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

9월 정기임원회가 9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9월 24일(토) 열리는 제5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신청자는 현재 173명이며,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주)크라운해태제과에서 제공하는 제과세트 및 동창회에서 마련한 물품(샌드위치 및 김밥 도시락, 물 등)을 자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상 수상자 50명에게는 상장 및 (주)모나미 제공 문구세트를, 나머지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는 크레파스를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임원들은 당일 오전 9시까지 현장에 당도하여, 업

무 분담표를 확인하고 숙지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11월 28일(월) 열리는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 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로 추천된 동창 2명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당일 초청 공연팀에 대한 소개, 기념품 협찬 진행 상황, 각 과에 배부할 티켓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2016년 ‘이화인의 밤’은 11월 28일(월)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이날 3부 행사에는 카이로(KYLO) 남성 4중창단을 초청하여 약 40여 분간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이기로 했는데 원하는 동창들이 있으면 미리 신청곡을 받기로 하였다. 임원들에게는 참석자 1,200여 명에 대한 선물용 가증 물품 섭외를 부탁했다. 또한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2016년 ‘아름다

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9월에 열릴 예정이던 2016년 총동

창회 바자회는 절반 정도 신청한 상태에서 취소하였음을 공지하였다.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11월 28일(월) '이화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다.

선정위원들(김영주 총동창회장, 정준순 부회장,

임진 음대회장, 송은미 총무, 한숙영 문화부장, 이영희 홍보부장)은 총동창회 소회의실에 모여 각 대학과 지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의 행적 사항을 1차 심사하였으며, 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페루와 칠레의 오지에서 26년간 의료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오주엽(의학 81) 동창이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선교부 소식

해외 선교사들 모교 방문과 상반기 위로회

7~8월 총동창회 선교부 화요중보기도모임에서는 지난 6월 제35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를 통해 축복하고 기도했던 단기선교 학생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다.

CCC, IVF, ESF, 예수전도단, ESSEL, 예그리나, 비전선교단, 신대원, 선교장학생 소속의 학생들 24명은 대만, 케냐,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로 단기선교를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7~8월 동안 아시아, 중동, 태평양, 아프리카 등 각지에서 복음의 통로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모교를 방문하여 간증과 함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었다. 선교부는 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남미문화원에서 상반기 위로회 열어

이들은 미국에서 유대인 사역을 하는 고에스더(중문 89) 선교사, 모로코의 유예상(철학 90) 선교사, 중앙아시아 K국의 도미영(기독 98) 선교사,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 태국으로 가는 염승혜(서양 96) 선교사, 한나선교회 김영란(특교 85) 선교사, 카자흐스탄의 오주영(화학 94) 선교사, LDI 선교회의 박혜원(영문 79) 선교사, 케냐의 김선정(영문 88) 선교사, 영국에서 사역하는 김명희(특교 90) 선교사, 필리핀의 고순영(사복 62) 선교사, 우간

다의 박주리(교육 89) 선교사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저개발국에서 의료사역 중인 유병국(간호 75) 선교사이다.

또한 선교부는 7월 7일(목) 중남미문화원으로 상반기 위로회를 다녀왔다. 중남미문화원 내 성당에서 상반기 동안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진 뒤, 아름다운 문화원을 둘러보며 상반기 사역 평가를 하고,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캠퍼스 순례 찬양

올해도 선교부는 7~8월 여름방학 동안 매주 화요 모임 후 캠퍼스(대강당, 중강당, 학생문화관, 본관)를 순례하며 찬양하였다. 76년 만의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의 용사들은 모교 캠퍼스 곳곳을 다니며,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

특히 미래라이프대학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모교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화의 창립 정신을 회복하고, 그동안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위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여름 캠퍼스 순례 찬양의 시간에는 외국인 유학생,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관광객들과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도 있었다.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다시금 이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학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캠퍼스가 되도록, 이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수와 학생, 동창들이 늘어나고, 그리하여 이화의 캠퍼스를 밟는

지치고 싱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유학생과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한 캠퍼스 순례 찬양



동창모임, 소모임을 즐기기 좋은 모교 맛집

1990년대 초반 모교 교정에서 식사를 할 때는 가정관(현 생활환경관)에 있던 학생식당을 이용했고, 조금 더 가볍게는 학생관(현 학생문화관)에서 1,000원짜리 김밥으로 해결하곤 했다. 분식은 후문 근처 ‘딸기골’이나 정문 밖 ‘민주떡볶이’에 나가서 먹거나 조금 씩 사와서 과방에서 먹기도 했다. 여름에는 ‘가미’의 냉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냉면인 줄 알았던 시절이었으니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창들이 학교 안 수많은 맛집들을 보고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동창들 간의 소모임, 혹은 연말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시절 만남의 장소였던 커피집과 음식점이 사라진 생소한 모교 밖 골목을 전전하지 말고 모교 캠퍼스로 들어가 보자. 김밥 종류가 총 망라된 김밥 카페테리아, 정갈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한식 레스토랑부터 소규모 세미나나 컨퍼런스, 돌잔치도 가능한 중식 및 서양식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식당과 카페를 고를 수 있다. 모교 안 대표 맛집 몇 곳을 소개한다.

모교에서 만나는 엄마집밥 ‘김풀풀’

국제교육관 1층에 위치한 ‘김풀풀’은 학생식당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매일 메뉴가 바뀌는 엄마집밥 콘셉트의 한식당이다. 도정한 지 열흘이 넘지 않은 쌀로 밥을 짓기 때문에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조미료를 쓰지 않은 정갈한 반찬도 마음에 듈다.

밥 양이 조금 적은 듯했지만, 밥과 반찬은 모자라면 리필 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700원, 8,800원, 9,900 원짜리 반상 A,B,C 세트는 매일 메인 메뉴와 반찬 구성이 조금씩 바뀐다. 맛도 달거나 짜지 않아서 자극적인 것을 싫어하는 동창들에게 안성맞춤 식단이다.





〈1박 2일〉에도 소개된 그 유명한 ‘돈가스’를 먹을 수 있는 헬렌관식당

TV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언급될 만큼 유명한 헬렌관 돈가스는 가성비 매력만점이다. 얼굴 크기만 한 등심 돈가스에 적당한 양의 밥과 샐러드가 한 접시에 3,900원이다. 헬렌관 식당에는 돈가스 말고도 점심에 운영되는 푸드 코트가 있다. 이곳에서 야채 비빔밥이나 치킨 덮밥 류를 먹을 수 있고, ‘옛향’에서는 한식 위주의 석식을 즐길 수 있다. 학생 시절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한다.

세미나와 컨퍼런스, 돌잔치도 가능한 중식 레스토랑 ‘캐세이 호’

ECC 지하 4층에 위치한 ‘캐세이 호’는 가족단위 소규모 행사나 돌잔치로 입소문이 난 중식당이다. 식사를 한 뒤 캠퍼스로 나가면 사진 찍을 장소가 많다는 이유로 인기에 한몫을 한다. 25인까지 수용 가능한 4개의 룸에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 등 세미나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교수진의 세미나, 회의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캐세이 호’의 도시락 세트는 테이크아웃으로 인기인데, 탕수육, 삼선짜장으로 구성된 세트 A, 깐풍기와 사천탕면 혹은 짬뽕 구성의 세트 B가 모두 2만 원대 초반이다.



ECC 내 ‘닥터 로빈’에서 이탈리안 풍미를

건강을 추구하고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하는 동창들에게 ‘강추’인 ECC 지하 4층 ‘닥터 로빈’은 동창들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인기 메뉴인 리코타 샐러드와 우유가 아닌 100% 우리 콩을 갈아 만든 크림을 넣은 통단호박 스프는 ‘베스트’ 메뉴로 자리 잡았다. 이탈리안 메뉴뿐 아니라 야채 가득 매콤한 쌀국수와 타이 볶음밥은 느끼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 동창들이 고를 만한 메뉴이다. 재학생과 교직원은 10% 할인받을 수 있고 동창들도 E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탁 트인 박물관 광장 옆 카페에서 차가운 모히또를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박물관 앞에 아담한 카페 하나가 보인다. 일명 박물관 카페라고도 불리는 ‘커피 앤 웍스’는 모교 내에서 콜드 브루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햇볕이 따갑지 않다면 야외 테이블에서 차가운 콜드



브루에 우유와 민트 잎을 섞은 모히또 한잔을 먹으며 친구를 기다려도 좋다.

포스코 관 명물 ‘이화사랑’

모교의 명물이 되었을 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포스코관 지하 1층 ‘이화사랑’ 김밥 카페는 줄여서 ‘이사김밥’이라고 부른다. 김밥 ‘파라다이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메뉴가 다양하다. 고추멸치김밥, 진미채김밥, 고추잡채김밥, 건강잡곡김밥, 연어김밥, 떡볶이 양념김밥 등 푸짐한 김밥 메뉴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좋다. 여럿이 함께 가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김밥을 고른 후 중앙에 있는 ‘파라’ 카페에서 900원짜리 파라커피나 생강차, 모과차, 율무차, 유자차, 대추차(각 1,800원)와 함께 먹으면 도란도란 정겨운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부담 없이 자유로운 ECC 지하 4층의 푸드 코트 푸드홀

학생식당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정문에서 가깝고 메뉴 선택 폭이 넓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중국식 면 요리를 파는 ‘누들 뚜르’, 돈가스 종류를 파는 ‘칸소’, 탕과 찌개 종류가 있는 ‘차림’, 철판요리 ‘보카보카’ 등이 있다. 여름엔 ‘차림’의 열무냉면이 일품이다. 식사 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올인원 식당이다.

추억 속으로 ‘학생식당’

학생식당(현 생활환경관 지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리모델링을 한 뒤 외식업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식당의 소탈한 느낌은 여전하다. 학생식당의 최대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저렴한 식사 비용. 가격이 제법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력은 학생식당을 따라갈 곳이 없다.

요일별로 달라지는 한식 식단은 아침 8시 30분부터, 볶음우동이나 돈가스, 라면류와 덮밥류는 10시부터 배식이 가능하다. 맛있다고 소문난 메뉴는 경쟁이 치열해서 늦게 가면 매진이다. 학생식당의 베스트 메뉴였던 추억의 우동은 사라졌지만 다양한 메뉴를 보니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글·전세영(시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김숙희(가정 60)·이행자(영문 62) 동창

'YWCA 대상' 수상

8월 23일(화) 더케이경주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전 교육부 장관 김숙희 동창과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행자 동창이 'YWCA 대상'을 수상했다.



이숙녀(심리 62) 동창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세종문화상' 수상

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인 알재단(AHL Foundation)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를 지원해온 이숙녀 동창이 5월 13일(금)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세종문화상을 받았다.



곽연(서양 67) 동창

'대한민국 최고국민대상' 수상

9월 2일(금)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6 대한민국 최고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손병옥(영문 74)·한경희(불문 87) 동창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공동대표 선임

기업 이사회와 여성 이사들로 구성된 세계여성이사협회(WCD)가 9월 1일(목) 서울에서 한국지부 창립총회를 열고, 푸르덴셜생명 회장 손병옥 동창과 한경희생활과학 대표 한경희 동창을 한국지부의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는 잠재력 있는 국내 여성 인재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옥경(영문 82) 동창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 선출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양옥경 동창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박은혜(유교 83) 동창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회장 선출

7월 5일(화) 모교에서 개최된 제68회 세계유아교육기구(Organisation Mondiale pour l' Education Préscolaire·OMEP) 대표단 회의에서 세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3년이다. 박은혜 동창은 현재 모교 사범대학 부속이화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이향숙(수학 86) 동창

대한수학회 회장 선출

이향숙 동창이 제24대 대한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년이다. 대한수학회는 기초과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 중 하나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며, 여성 회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황진선(경영 90) 동창

'2016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 상' 수상

6월 13일(월) ECC 아삼봉 힐에서 개최된 경영학과 홈커밍데이에서 전 코웨이 전무 황진선 동창이 '2016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 상'을 받았다.



조해진(교육 99) 동창

제17회 이효석문학상 수상

소설가 조해진 동창이 제17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단편 「신책자의 행복」이다.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

금융감독원은 8월 25일(목)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모교 재학생 이샛별(경영 13학번) 씨가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모교에서는 재학생 포함 3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이 중 동창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미우(경영 11) / 이해리(경영 13) / 김영하(수학 16) / 김혜진(경영 16) / 박소영(경영 16) / 박조희(커미부 16) / 홍고운(법학 16)

국악을 통해 인생을 깨우치게 하신 분



황병기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을 연구하고, 1974년 모교에 국악과가 신설되면서 국악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1년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했다. 미국 하버드 대 객원교수, 서울 통일음악회 집행위원장, 국악 축전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은관문화훈장, 제1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제21회 후쿠오카아시아 문화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가야금 선율에 흐르는 자유와 창조』 등의 저서와 〈침향무〉 〈달하 노피곰〉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등의 음반이 있다.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 곽은아(한음 85)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사단법인 가야금산조보존연구회 이사, 현 모교 음악대학 한국음악전공 교수
기숙희(한음 01)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가야금 시중주단 '여울' 리더, 모교 강사

황병기 명예교수는 2004년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이 남성에게 수여된 것은 최초였다. '이화인'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황 교수와 모교의 인연은 길고 깊다. 1974년에 모교에 국악과(현 한국음악전공)가 신설되면서 당시 김옥길 총장은 황병기 교수를 적극 영입했고, 이후 2001년 정년퇴임까지 모교에 봉직했다. 국악과가 생기기 이전인 1968년부터 강사로 출강한 역사까지 치면 무려 33년간 이화에 몸담은 셈이다.

그가 강의한 교양과목 〈국악의 이해〉의 인기는 대단했다. 수강 신청 첫날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과목 중 하나였고, 대형 강의실에도 수강생을 다 수용하지 못해 뒤늦게 분반되기도 했다. 〈국악의 이해〉의 인기에 대한 소문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오는 10월 황 교수는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국악의 이해〉 콘셉트로 8회 코스 강연을 한다. 음악감독을 맡은 김정승 씨가 황 교수를 찾아가 "이대에서 강의하시던 〈국악의 이해〉처럼 강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나의 스승 나의 제자' 인터뷰를 위해 황 교수에게 전화하자 흔쾌히 응했다. 81세의 나이에도 그는 비서나 매니저 없이 혼자 스케줄을 정하고 관리한다. 황 교수는 "제자 중 누구를 부를지 생각해보겠으니 다시 통화하자"며 다음 통화 약속을 정했고, 약속한



왼쪽부터 기숙희 동창, 황병기 명예교수, 곽은아 동창

날 전화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아 명료하게 답했다. “이대 교수로 있는 곽은아 교수와 이대에 출강하는 기숙희 교수가 오기로 했어요. 둘 다 나에게 배웠고, 둘 다 이대에서 강의하고 있으니 동창회보 인터뷰에 적임자예요.”

황 교수와 두 제자를 지난 9월 19일(월) 오후, 북아현로에 있는 황 교수 자택에서 만났다. 곽은아 동창과 기숙희 동창은 ‘황병기 작품보존회’ 회원이기도 하다. ‘황병기 작품보존회’는 70분 길이의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를 완주한 황병기의 제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 교수의 자택 2층에 들어서자 북아현동 마을이 시원스레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김옥길 전 총장의 배려

황병기 이 제자들은 ‘황병기 작품보존회’ 회원이면서 이화여대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곽은아 교수는 내 제자이면서 대학원에서 내 조교를 오래했고, 지금은 내 자리를 이어받아서 한국음악전공

교수로 있지. 기숙희 교수는 어머니가 문화재관리국에 계셨던 분이어서 DNA가 남달라요.

곽은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석사까지 선생님께 죽 배웠어요. 선생님께 가야금은 물론, 음악을 대하는 자세, 인생을 보는 눈도 배웠어요.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발상으로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할 때가 많아요.

기숙희 저 역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1학년 때까지 선생님께 배웠어요. 그 이듬해에 정년퇴직하셨죠. 선생님이 퇴직하시고 곽 교수님이 오셨어요. 저는 황병기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이면서 곽은아 교수님의 첫 제자네요.

황병기 내가 이화여대에 참 오래 있었어. 사실 처음에는 서울대에서 가야금을 가르쳤거든. 이대에 국악과가 1974년에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당시 김옥길 총장이 나를 국악과과장 교수로 초청했어요. 그 전까지 김옥길 총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 김옥길 총장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내 대표작으로 꼽는 〈침향무〉를 1974년에 썼거든. 또 이대에 오기 전에 유럽순회공연이 계약돼 있었는데, 김옥길 총장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허락했어요. 국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면서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참 감사하지. 또 김옥길 총장 댁에서 빈대떡이랑 냉면 위주의 파티를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도 나를 초청하곤 하셨어요.

곽은아 선생님이 이대에 오래 계시면서 다져놓은 전통이 지금까지도 굳건해요. 음악과 인생의 넓은 범주를 통해 국악을 보게 하셨죠. 국악을 배우러 와서 세상을 배우고 가는 느낌이랄까요. 선생님은 서양음악에도 박식하셨지요. 여행을 다니면서 모은 다른 나라 전통악기를 가져오셔서 “이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주시던 생각이 나네요.

황병기 에스닉 뮤지컬러지(Ethnic Musicalology)라고 대학원 수업에서 그런 수업을 했지. 보통 ‘민족 음악학’으로 번역되는데, 서양음악에 대비해 비서구음악연구를 지칭하는 학문이에요. 그 방면 지식이 없으면 참 어려운 과목이어서 우리나라에는 활성화 돼 있지 않아.

곽은아 원서로 수업했잖아요. 대학원생들에게 원서 번역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가르쳐주셨고, 그것을 조합해 스스로 번역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기억도 새삼스러워요.

기숙희 저에게 황 교수님은 정말 각별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무대에 올랐는데, 그때 연주곡이 선생님의 〈침향무〉였어요. 대학에 와서도 선생님과 함께 〈침향무〉로 무대에 섰죠. 선생님을 통해 음악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배웠어요. 저는 음악을

진지하게 생각했거든요. 감성적으로 몰입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객관적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황병기 연주하는 사람은 감정을 빼야 한다는 얘기야. 담담하게 해야 좋은 연주가 나와요. 연주하는 사람이 그림처럼 흔들림 없이 해야지, 인상 쓰고 고개 돌리고 하면 안 돼. 코미디언을 봐. 자기는 웃으면서 남을 웃기잖아. 운동선수도 냉정하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음악도 마찬가지지. 연주자가 음악에 빠져들면 안 돼.

기숙희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황병기 기숙희가 대학에 와서 첫 오디션 때 정악을 했는데, 정말 몰입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 이런 조언을 하지만 100%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말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기의 스타일을 살릴 수밖에 없지. 어쨌든 나의 연주사상은 최대한 감정을 빼라는 거야. 몰입을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나쁜 아니라 판소리 명창 안숙선 씨, 대중가수 조용필 씨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

틀을 싫어하시는 분

곽은아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 인생에 대해 많이 배우게 돼요.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선생님은 발상 자체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는 386급인데, 선생님은 펜티엄급이라고요. 그 연세에도 새로운 발상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참 신기해요.

황병기 모르긴 해도 내가 틀에 얹매이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해선 잘 속아넘어 가지 않지. (일동 웃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만들 어놓은 틀에 들어가려 하잖아. 난 틀을 싫어해. 일례



가야금산조를 연주하고 있는 황병기 명예교수

로 난 교수이면서 이대 교수식당을 잘 안 갔어요. 이 대 앞에 웬디스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었는데, 거길 좋아했지. 가 보면 강사나 교수는 한 명도 없어. 전부 학생들이지.

곽은아 선생님하고 몇 번 가서 햄버거 먹던 생각이 나요.

기숙희 저도 선생님께 밥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선생님은 끼니를 참 잘 챙겨 드시잖아요. 공연을 같이 다녀도 꼭 밥을 챙겨주시고 잔정이 많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음악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곽은아 제가 선생님 직계 제자이자 오랜 제자이다 보니 사람들이 제게 선생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봐요. 선생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선생님 무서우시지?” 많이 물으세요. 저는 “아니야. 무서운 분은 아니셔. 어려운 거지”라고 답하곤 해요. 공과 사가 분명하시고, 생각과 판단이 명료하시고,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하셔서 사람들 눈에는 무섭게 보이

는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선생님을 닮아가는 저를 느껴요. 선생님은 남에게 민폐끼치지 않는 것이 체화된 분이시죠.

황병기 글쎄.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고 잘해주려 하기보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애국자야. 나라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존재가 나라에 폐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곽은아 선생님의 뒤를 잇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황병기 내 제자들 보면 다 나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곽은아, 기숙희도 다 나보다 나은 것 같고. 가야금뿐 아니라 인생도 그래. 제자들에게 부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나부터 제자들에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자들에게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자랑스런 이화의 얼굴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초대 공동대표 겸
한경희생활과학 대표 한경희 동창

성공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세계 상위권 200대 기업들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평균 43.14%인데 비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2.1%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프리카에도 있는 세계여성이사협회(WCD)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엔 없는 거지요. 임기 동안 공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30%로 법제화하는 활동을 벌이려고 해요.”

지난 9월 1일(목), 푸르덴셜생명 회장 손병옥(영문 74) 동창과 함께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의 초대 공동대표가 된 한경희생활과학 대표 한경희(불문 87) 동창의 말이다.

WCD는 세계 7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3,500명의 회원이 1만여 기업의 명의 등기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 리더 커뮤니티이다. 이들이 활동하는 1만여 기업의 시가총액이 무려 1경 원, 나라로 치면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나라라고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다. 기업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성 이사의 비율이 30% 이상 되는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WCD 한국지부는 이사회 이사로서 자격이 있는 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외이사를 뽑는 기업에 여성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해야 할 일도 져야 할 짐도 무겁지만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며 한 동창은 환하게 웃었다.

우리에게는 ‘스팀청소기의 신화’로 유명한 한 동창은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2005년), 『월스트리트 저널』 선정 ‘주목해야 하는 여성 기업인 50인’(2008년), 『포브스 아시아』 선정 ‘아시아파워 여성 기업인 50인’(2012년), 『뉴스위크』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2012년)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여성 사업가이다.

독립을 꿈꾸던 당찬 소녀

“나중에 백만장자가 될 거야.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닐 거거든.”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물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대지는 못했지만 한 동창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아버지의 무관심에 반항하듯 독립하겠다는 열망이 강했다. 당연히 대학은 남녀공학에 가겠다는 그녀와 반드시 여대여야 한다는 아버지와의 입장 차이는 결국 여대에 가되 전공은 공부하고 싶은 불문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대학 때 그녀는 약착같이 돈을 벌었다. 목표는 부모님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다. 들어오는 통역, 번역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다 했다. 직접 옷도 만들어 입고, 친구와 분식집에 가도 1인분만 시켜 친구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돈은 그녀에게 자유였다.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통장에 1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였다. 불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 여자 친구와 자취한다고 둘러대고 학교 후문에 자취방을 얻었다. 달콤한 독립의 시간은 고작 한 달, 결국 아버지의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갔다. 한 번의 실패는 더욱 독립의 열망에 기름을 부었다. 방법은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죽어라 외국 어 공부에 매달렸다. 외국어는 그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줄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다. 대학교 3학년, 영어와 불어를 하는 직원이 필요한 타히티의 봉제회사에 취직된 후, 아버지께 당당히 2년만 휴학하고 돌아오겠다 말씀드렸다. 웬걸, 한번 휴학하면 졸업하기 힘든 것이 인생이니 학교만은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반대

에 두 번째 독립 시도도 결국 무산됐다. 드디어 대학교 4학년, 스위스 로잔 IOC사무국의 채용 공고를 보았고 당당히 합격 통지서를 받아 스위스로 떠났다.

열정과 배움의 7년 외국 생활

하지만 사무국의 일상은 무료했다. 하는 일이라곤 고작 스포츠 기사를 스크랩하는 단순 업무였다. 동료들의 눈에 그녀는 동양에서 온 노란 얼굴의 여직원일 뿐이었다. 존재감 없는 현재가 성에 차지 않았다. 1년 만에 사표를 던지고 미국행을 선택했다.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커다. 이론과 실기를 두루 갖추겠다는 생각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MBA 과정을 밟는 동안에 호텔 실습을 나갔다. 전화 교환원에서 프런트 데스크, 레스토랑 서빙을 거쳐 객실 영업까지 열심히 일했고 경영의 기초도 몸으로 배웠다. 어느 정도 자리 잡자 그녀 안에 새로운 욕망이 들끓었다. 다른 시작은 포럼에서 부동산 재벌인 일본계 미국인 기요코를 만나면서였다. 성공을 자신하며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황금광산인 줄 알았던 부동산 시장은 등락이 심해 한창 하락세였고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후였다. 죽어라 뛰어다녔지만 손에 쥐는 게 없었다.

깨끗이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당시 유통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던 선두 도매기업 이자 생활용품 매장의 대명사 콩코드 엔터프라이즈의 ‘1달러숍’에 들어갔다.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읽으려고 애썼고 다른 영업사원보다 2~3배 높은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그게 함정이었다. 그녀가 한국인 도매상에 물건을 빼준다는 부당한 오해를 산 것이었다. 억울했다. 7년 동안의 고된 해외 생활이 남긴 건 서러움과 자괴감뿐인 슬럼프였다.



“10%의 아이디어와 90%의 실행력이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한경희 동창

그 무렵 아버지의 전화가 잣아졌다. 인정도 빠르고 결정도 빠른 그녀였다.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자신이 쌓은 노하우가 분명 제 몫을 할 거라고 자신했다. 무역회사를 차리고 밤낮없이 일했고, 와국어 강의와 번역도 해보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그녀에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결혼할 게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받았을 것이다. 잠시 쉬어가자 결심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을 만났고, 뜨거운 열애 끝에 결혼했다. 이듬해인 1998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행정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스팀청소기로 돌풍을 일으키다

둘째아이의 출산휴기를 내고 집안일과 육아에 매

여 살 때였다.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 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대걸레에 스팀이 나오게 하면 편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될 텐데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스스로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만들 것이라는 확신까지 생기더라고요.”

우주에 로켓도 쏘아 올리는 세상에 청소기쯤이야 하는 근거 없는 믿음에다 아는 엔지니어로부터 5,000만 원 투자비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 길로 사표를 내고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1999년 한영전기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스팀청소기 개발은 쉽지 않았다. 6개월이 흘렀지만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첫 시련은 가전기기 안전의 기본이 되는 일정한 전력량을 유지하는 것.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실패가 계속되었다. 내로라 하는 기술자들조차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았다. 개발비도 턱없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하나 자포자기할 무렵 시아버지가 집 문서를 내놓으셨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싶은 대로 원없이 해보라는 격려와 함께 꼭 해낼 거라고 힘도 주셨다.

간신히 한 고개를 넘어섰나 싶으면 또 다른 난관이 앞을 막아섰다. 물통 금형 문제에다 걸레의 원단 문제, 벨크로(찌찌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오기가 그녀의 등을 밀었다.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고 개발비는 끝도 없이 들었다. 살던 집은 물론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집까지 다 잡힌 터라 실패하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그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다.

정부지원사업의 문도 두드렸다. 사업계획서는 완벽했지만 회사로 실사를 나온 평가자들은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다 망했길래 당신이 바지사장으로 나와 있는 거냐”며 비아냥거렸다. 모욕감보다 사업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해묵은 편견에 화가 났다. 더구나 스팀청소기는 구매자의 70~80%가 여자인데도 그걸 평가하는 건 남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책결정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성 평가자들이 여성들의 사업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 여성 평가자들을 도입한 것에 1세대 여성 기업가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창업 3년 만인 2001년에 드디어 스팀청소기 개발에 성공했다. 10억 원의 빚, 밤낮 없는 속앓이,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 대한 미안함을 단번에 날릴 만큼 기뻤다.

기쁨도 잠시, 제품만 개발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는데 이번엔 판매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에는 여성 속옷 바이어도 남성일 때였다. 대형마트 판매 담당자들은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스팀청소기가 팔리겠느냐”며 힘 빠지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새로운 판로 개척에 온 힘을 쏟았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온라인과 홈쇼핑 판매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미 사용해본 주부들의 입소문이 힘을 보태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통장에 동그라미 수가 늘어났고 제대로 본 궤도에 진입했나 싶었는데 국내 대기업과 해외업체에서 유사품이 쏟아져 나왔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그녀는 회사명에 ‘한경희’라는 이름 석자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름을 내세워 이 제품을 처음 개발한 원조로서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을 위한 제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였다. 결과는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콤플렉스가 성공을 가져온다

여성의 입장에서 착안해 낸 스팀다리미, 광파오븐, 진동파운데이션과 생활가전인 정수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그녀는 생활의 혁신을 가져올 제품을 연달아 내놓았다. 신제품 출시 때마다 그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에 맞는 제품인가를 되짚어본다.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인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제품인가하고.

한 동창은 최근 도마 없이 요리가 가능한 신개념 조리 도구인 가위칼을 내놓았다. 냄비나 프라이팬에 직접 썰어 넣을 수 있어 편리한 데다 비위생적인 도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올 가위칼은 위생적이고 조리 시간도 줄여줄 수 있어 주부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고객이 제품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도 함께하는 ‘클라우드 소싱’과 매주 금요일 오후 모든 직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싱크타임, 1년 또는 반기 단위로 여는 사내 프로젝트 공모전도 그런 생각이 만들어 낸 것이다.

“저는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손재주도 없고, 행동도 굼뜨고, 요리도 살림도 잘 못해요. 그래서 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죠. 그런 결점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고객의 눈높이에서 모든 제품을 최고의 품질로 만들겠다는 생각, 사업은 10%의 아이디어와 90%의 실행력이라는 그녀.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더욱 궁금해진다.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15주년을 맞이한 번역 프로젝트

지난 5월,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번역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R선교사와 번역자들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을 함께했는데, 돌아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쏟은 열심과 열정, 헌신이 Tn, Tm, Mn, Mu어 사람들에게 영적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하며, 4개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신실하게 저희들과 함께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는 축복은 그 말씀의 진리가 참으로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에서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그분께서 주관하시도록 사는 삶은 매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사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로 살아야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되려 합니다.

요한복음 번역 마무리를 앞두고, 현지인 번역자들과 제가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T어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번역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나, 때로 의견이 달라 긴장 상태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이고 표현력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슴앓 이를 합니다. 연령차가 중요한 문화여서 젊은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나이 든 분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언어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연합에 대한 열망도 깊어지길 바랍니다.

호주 앤리스스프링스에서 6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열렸던 서신서 담화분석(Non-narrative Discourse Analysis)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워크숍 몇 달 전부터 T어



선교사와 번역자들이 모두 모여 번역 프로젝트 15주년을 축하하였다



인도네시아 성서공회 자문위원과 함께 누가복음과 고린도 전후서 번역 점검을 하였다



호주에서 열린 서신서 담화분석 워크숍의 참석자들

로 된 설교, 편지, 기도문들을 수집하였고, T어로 번역된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모아갔습니다. 워크숍 기간 동안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강의 시간에 배운 원리에 따라 수집해 간 텍스트들과 번역된 성경을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갖고 살전 2장의 권고문, 행 3장의 설교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번역이 자연스러운 번역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게 됩니다. 자료들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어 일반 텍스트와 번역문의 통계치가 같은지 다른지, 그에 따라 번역문이 자연스럽게 되었는지를 가려내는 다소 딱딱한 작업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에 눈을 뜨게 된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참석자 중 2명이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영어 대화가 피곤할 때 인도네시아 말로 대화할 상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2주간의 워크숍이 끝나는 금요일 오후, 저는 저녁 비행기로 바로 그 도시를 떠났는데, 그날 저녁 그곳에 큰 우박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에 비행기가 이륙하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7월 4일(월)부터 16일(토)까지 인도네시아 성서공회 자문위원이 와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후서 번역 점검을 하였습니다. Tn어와 Tm어로 된 번역을 동시에 점검해야 했으므로 두 언어팀의 번역자들이 함께 하여 서로의 번역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통해 각각의 번역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서공회 쪽의 자문위원이라 그동안 저희들의 번역을 점검해주었던 위클리프 출신의 자문위원과는 다른 측면에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위클리프 쪽의 자문위원들은 원어에 없는 것이라도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몇 단어를 삽입하기도 하고 같은 어구를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성서공회 자문위원은 원어에 없는 것은 되도록 지우는 쪽을 권유했습니다. 번역 원리에 대한 다른 관점 때문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여러 다른 관점들에 열린 마음을 갖고 폭넓게 접근하는 포용력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계획한 분량을 마치기 위해 공휴일과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지인 번역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글·김경옥(국문 84)

♥ 기도해주세요 ♥

1. 번역자(벤처, 피안, 알렉스, 제기)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번역·수정 작업을 감당하며, 교회와 이웃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흡연을 많이 하는데 금연을 할 수 있도록.
 2. 번역자 피안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3. 사도행전, 베드로전후서 자문위원(인도네시아 성서 공회 자문위원)의 절검이 잘 진행되어 Tombulu와 Tontemboan어로 번역된 성경이 좀더 정화하고 의미 전달이 분명하며 자연스런 문장으로 수정되도록.
 4. 요한복음 16-21장의 번역 정화성 절검과 계속되는 마을 절검이 잘 진행되어 사람들이 읽기 쉬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5. 현지인 번역자인 A와 K가 10년 전에 번역했던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며 개정 작업을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요 단어들을 통일하며 문장을 잘 수정하도록.
 6. 제가 세상적 지혜가 아닌 말씀 안의 지혜로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번역자들과 의사 소통을 잘하며 번역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7. 어머니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며, 다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 친구들, 교회, 이웃들, 노인들의 노인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도록.

“이화캠퍼스에서 배운 당당함이 평생 자산이 됐어요”



기영화(행정 85) 동창과 약속한 날 세찬 폭우가 내렸다. 도로가 꽉 막혀 약속시간보다 30분 가까이 늦었지만 기동창은 무안할 만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비를 뚫고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후배님.”

두 손을 꼭 감싸줘더니 꽉 휴지를 뽑아 팔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었다. 꼭 친 손이 따뜻했다.

기영화 동창의 손에는 반지와 손목시계가 없다. 2014년 4월 29일, 국가평생교육원장으로 임명받고 출근한 첫날부터 죽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제 다짐이에요. 반지는 결혼과 가정의 상징이고, 손목시계는 개인적인 시간의 상징이잖아요. 가정도 내 시간도 없이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 합니다.”

기영화 동창은 모교 행정학과 1기 졸업생이다. 이후 한국지역사회협의회 연구위원, 승실대 평생교육원 원장을 거치면서 22년간 평생교육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당시만 해도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다. 그가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시절 유행하던 신부수업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전통문화 보급 및 예절교육

기관인 ‘예지원’은 당시에도 예절교육 산실로 유명했다.

“동기 중 몇몇이 예지원으로 신부수업 받으러 다녔어요. 수업 내용을 들어보면 절하는 법, 숟가락 놓는 법, 인사법 등 기본예절이 많더군요. 그 상황이 신기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런 예절을 식탁 위에서, 마당에서 자연스럽게 익혔거든요. 그것을 ‘사회화’라고 여겼는데, 동일한 행위가 콘크리트 박스 안에 들어가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과 사회화의 차이가 뭘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고, 둘은 같은 것이라고 봤어요. 결국 교육은 인간의 삶터, ‘삶 살이’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케이모크(K-MOOC)의 보급 및 확산

기영화 동창이 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맡은 프로젝트는 케이모크(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한국형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홈페이지 주소: www.kmooc.kr)의 론칭 및 확산이다. 케이모크는 기동창이 임명되기 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였지만 2개월간 국가평생교육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지부진하던 중이었다. 기동창이 취임하면서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탔고, 취임 1년 5개월여 만에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무크가 등장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학가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중이다. 『뉴욕타임스』는 무크가 몰고 올 혁신적 변화를 예감하고 2012년을 ‘무크의 해’라고 명명했을 정도이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4대 무크 플랫폼인 코세라(Coursera), 에덱스(edX), 퓨쳐런(FutureLearn), 유다시티(Udacity)에 등록한 학생 수는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550개 명문 대학에서 무크에 제공 중인 강좌는 4,000개가 넘는다. 무크의 확산으로 15년 이내에 미국 대학의 25~50%가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도 있다.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3년 말, 국정 과제의 하나로 케이무크가 전격 추진된 것이다. 기동창은 “무크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졌어요”라며 말을 이었다.

**“무크의 취지는 ‘고등지식의 나눔 확산’이다.
특권이던 대학교육을 원하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무크의 등장으로 특정 대학의 소유였던 지식과 정보가 공유지에 올라가게 됐잖아요. 특권으로 인정받던 교육이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생필품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10년, 20년 후의 대학 모습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당장 5년 후만 돼도 대학 캠퍼스에 지금처럼 학생이 많지 않을 거예요. 모바일 수업을 더 선호하는 젊은이들은 캠퍼스에 오고 가는 시간을 줄여 자신의 진로개척에 쓰게 될 것입니다.”

무크란 전 세계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대학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말한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MIT, 베이징대, 칭화대, 도쿄대 등 해외 유수의

기영화

모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1985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철학박사 및 동대학 포스트닥터,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 및 숭실대 평생교육원장, 한국성인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매뉴얼』『노인교육의 실제』 등이 있다.

대학은 물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도 케이무크를 통해 대학의 인기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모교도 무크에 적극적으로 합류했다. 올해에는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인간행위와 사회구조〉 등 8개 과목을 무크 과목으로 옮겼다. 이 중 물리학과 김찬주 교수의 〈현대물리학과 인간 사고의 변혁〉은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디지털미디어학부 류철균 교수의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는 인기강좌 베스트 5에 오른 바 있다.

무크의 취지는 ‘고등지식의 나눔 확산’이다. 스탠퍼드 대학 앤드류 응 교수는 코세라를 창업하면서 “고등 교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고 밝혔다. 무크의 등장으로 재벌이든 가난한 자든, 선진국 남성이든 교육 혜택이 적은 중동 여성이든 간에 하버드 대생이나 서울대생이 듣는 강의를 똑같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형 무크인 케이무크는 2015년 10월에 첫 선을 보인 아래 500개 이상의 강좌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무크에 대해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저 온라인 강의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기영화 동창은 이러한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지금도 무크에 대해 ‘그저 온라인 강좌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크는 사이버 강좌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프레임 베이스로 돼 있어요. 3분, 5분 등으로 짧은 퀴즈를 넣도록 했죠. 말하자면 살아 있는 텍스트북이에요. 무크가 강의실 벽을 허물고 있어요. 전 세계 무크 시장은 터져 버렸죠. 전 세계 무크 학습자들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들과 같아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보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동창은 현 시점을 ‘교육이 친란한 미래를 향해 문을 여는 시기’로 봤다. 중세시대 이후 변화가 거의 없었던 대학이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중세시대부터 현재의 대학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사람은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책상에 앉아서 서로 떠들기도 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죠. 어쩌면 가장 변화가 없었던 조직이 대학이었고, 고등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대학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요소를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의 대학수업 방식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에요.”

한인숙 명예교수에게 큰 영향 받아

기영화 동창이 행정학과를 택한 것은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부모님은 그가 법대를 나와 판사가 되길 원했지만 그는 모교에 처음 신설된 행정학과에 마음이 확 쏠렸다.

“행정학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특히 행정철학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인사에 큰 매력을 느꼈죠. 사람을 어떻게 선발해서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는 재학시절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수로 한인숙 명

예교수를 꼽았다.

“한 교수님이 대학교 1학년 수업시간에 하신 말씀이 평생 제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두 가지 말씀이셨죠. 첫째, ‘나는 끝까지 했기 때문에 교수가 됐다. 공부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해라.’ 둘째, ‘목표를 크게 잡아라. 처음부터 목표를 100으로 잡으면 있는 힘 다해도 100이 전부이지만, 200으로 잡으면 중간에 중단해도 100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죠.”

그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에도 퇴근해 집에서 매일 2~3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쉬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마음 때문이다. 독서광인 그는 최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빅데이터 관련 서적을 쌓아두고 읽고 있다.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도대체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은 남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빅데이터에 많은 답이 있죠. 결국 유일무이한 개성 있는 날개들, 혹은 거대한 것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의 인재상 또한 바뀌고 있다. 그는 정보와 지식으로 실력을 인정받던 전문직종은 더 이상 특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스몰 비즈니스나 공유지에서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모교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이화 캠퍼스에서 당당함을 배웠어요. 그 당당함으로 이화의 후배들이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해서 ‘나를 따르라’ 가아니에요. 그 등불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잊고 헤매지 않도록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모교 소식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모교는 8월 26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1,032명, 석사786명, 박사131명 등 총 1,94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봉독, 기도, 총장 말씀, 학위 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이며, 최고령자는 만 69세이다. 최고령 졸업생인 체육과학부 최영숙 동창은 1965년 모교에 입학해 촉망받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리듬체조 심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재입학해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최고령 학부 졸업생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EGPP) 장학생 4명을 포함, 르완다,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

국, 캐나다, 미국, 홍콩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총 76명(학사 38명, 석사 32명, 박사 6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모교만의 특별한 학위과정 프로그램으로, 이번 졸업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 모교에서 쌓은 교육 역량을 널리 펼칠 예정이다.



모교, ‘청년몰 조성사업’ 및 ‘스마트 창작터 사업’ 선정

모교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주관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

라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역 상권 내 유통 공간을 활

용하여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에게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마케팅 등이 함께 지원된다. 지역사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교를 비롯한 16개 지역을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교는 이번 사업 신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빅 프로젝트, 워크 투게더’를 비전으로 청년 창업자 육성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말까지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의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인테리어 진행, 스마트 폐이 및 비콘 시스템, ICT카페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북권의 창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하반기부터 단계별 창업 교육을 위한 ‘스몰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와의 교류를 위해 ‘워크 투게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팀을 멘토-멘티 관계로 구축, 청년 창업팀이 지역사회와 보다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모교는 2015년 기업가 센터를 설립, 교수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교내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왔다. 기업가정신 연계전공 과정을 개설해 학생 창업 교육을 활성화했으며, 세미나, 워크숍, 포럼, 경진대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교내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모교는 이번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을 통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에 대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육성하여 창의·창조 시대의 리더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앱, 콘텐츠, ICT 등 지식 서비스 융합분야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중소기업청 ‘스마트 창작터’ 사업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창업자들을 위해 연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창작터’는 빠른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제품화하여 시장 반응에 따라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린스타트업(Lean Startup)에 기반한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국내 대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대표이사 권도균)의 린스타트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게 된다.

모교는 스마트 창작터 사업을 통해 창업교육 우수 수료 25팀에 최소 제품 제작 및 사업모델 검증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하고, 이들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팀을 선발하여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지



원금과 사무 공간,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비즈니스플랜 워크숍, 비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등 최소 제품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시장 테스트,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검증 프로그램 등 특화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O2O 비즈니스 창업팀을 전략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모교는 2014년 창업보육센터 건립, 2015년 대학

기업가센터 사업 선정을 통해 학내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조성을 통해 청년 창업 문화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등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오억수 산학협력단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라는 모교만의 물적 인프라, 옐로모바일, 배달의 민족 등 우수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에서 만나는 세계, 하계 국제교류 프로그램

모교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6월 21일(화) ECC 이삼봉홀에서 국제하계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모교 국제하계대학은 1971년 국내 대학 최초로 외국의 젊은 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설되었다. 1977년에는 미국 캔자스대학과 ‘Kansas at Ewha Program’ 공동 운영을 통해 모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외국 대학에서 모두 인정되는 ‘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를 만든 바 있다.

모교 국제하계대학은 지난 46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6월 말부터 4주간 운영되는 <세션 I>과 8월 중 2주간 운영되는 <세션 II>로 구분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모교 국제하계대학 교과목은 한국학, 동아시아학, 여성학, 음악, 예술 교과목에 특화되어 있으며, 한국 전통 음악과 미술을 배우는 실기 수업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2011년

부터 북한학을 영어 강의로 개설하여 제공했다.

총 480여 명의 해외 대학생이 참가하는 모교 국제하계대학의 경우 2,000여 명 이상 대규모로 운영되는 타 대학 국제하계대학과는 달리 빈틈없는 지원, 소규모 수업, 다양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가 해외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빙된 교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서머스쿨(Summer School)과 공동으로 6월 21일(화)~8월 12일(토)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화—하버드 서머스쿨 프로그램(Ewha-Harvard Summer School Program)’은 미국 명문 하버드 대가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서머스쿨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6년 모교와 하버드 대가 파트너 관계를 맺은 이후 매해 개최되며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영화 한국 : 영화를



통해 고찰해보는 한국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폴 장(Paul Chang) 하버드 대 교수와 데이비드 정(David Chung) 미시건 대 교수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11명의 하버드 대 재학생과 13명의 모교 재학생 및 모교와 계절학기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24명의 참가 학생들은 현대 한국의 모습을 담아낸 영화 다섯 편을 감상하고 이

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영화 제작 기초와 다양한 영화 제작 접근 방법을 배우고 직접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를 제작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다 심도있게 경험했다. 또한 하버드 대 학생들은 영화 수업 외에도

한국어 수업을 8주간 수강하고 하버드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정규 교과목이 국내 대학에 개설되는 것은 모교가 유일하다.

8월 4일(목)에는 LG 컨벤션홀에서 폐회식을 갖고 6주간의 교육 일정을 마쳤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이 동시 개최되어, 모교 재학생과 하버드 학생들이 팀을 이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상영됐다.

이화인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 ‘2016 여름방학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성공리에 마쳐

‘2016 여름방학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 14개 팀이 여름방학 동안 아시아·미국·유럽 등지에서 현지 전문가 특강 및 세미나, 현장 실습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수인솔 해외학습 프로그램’은 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학점취득 해외파견 프로그램으로, 전공 교수 가 방학기간 동안 재학생을 인솔해 각국 대학 및 기관의 해외 석학들과 공동수업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교의 대표적인 해외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다. 모교

국제교류처는 2008년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및 지도하는 인솔 교수와 참가 학생들에게 재정지원 을 하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을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계절학기 교과목 개설이나 해외 학점이 전 형식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5명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했고, 예술·인문·국제학·간호·공학·교육·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됐다. 먼저 글로벌한국학 전공



노상호 교수팀은 6월 18일(토)~6월 28일(화) 일본을 방문해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등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일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반악기 전공 박소현 교수팀은 음대 학부생 13명과 함께 네덜란드 흐로닝언(그로닝겐) 국제 오르간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바로크 오르간 음악의 절정을

이루었던 북독일 악파의 중심지인 함부르크, 뤼베크, 브레멘 등 오르간 역사를 견학하고, 독일 음대 교수진들의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에 참가하며 음악적 역량을 강화했다.

약학대학 박혜영·정호철 교수팀은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Pacific Northwest 지역의 헬스 케어와 바이오제약’에 관한 해외현장학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현지에서 워싱턴 대학의 유전체과학(Genome Sciences)전공,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브리티시콜롬비아 대(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약학대학 등 세계 유수의 기관들을 방문하여 그간 모교에서 강의를 통해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이해하고 몸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양희동 교수팀(경영학 전공), 오진환 교수팀(국제학과), 이인성 교수팀(의류산업학과), 조덕현·이광호 교수팀(서양화 전공) 등이 영국, 스위스, 프랑스, 중국, 헝가리 등을 방문하여 현지 문화를 탐방하고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화 창립 130주년 기념 특별전

“Friends of Ewha” – 이화의 친구가 되어준 세 분의 스승

모교에 봉직한 세 명의 선교사 월터(Walter), 모리스(Morris), 칸로(Conrow) 선생이 미국에서 조직한 단체 ‘Friends of Ewha’ 소개와 함께 세 스승의 행적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 및 기록물을 공개하는 전시가 모교 이화역사관 전시실에서 내년까지 열리고 있다. 월터 선생은 이화학당 최초의 대학과 교수이며, 모리스 선생은 모교 가사과를 창설하고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칸로 선생은 외국인 선교사 중 가장 오랜 기간인 40년 동안 봉직하며 모교 영어교육에 큰 공헌을 하였다.

- 일시 2017년 5월까지
- 시간 월~금 9:30~16:30 / 토 9:30~12:00(동계 휴관 12월 21일~1월 31일)
- 장소 이화역사관 기획전시실
- 관람료 무료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사회과학대학

회장__김미령(커미부 69)

사과대 동창회 장학기금 200만 원 기탁

모교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와 동창의 날 행사를 잘 마친 사과대 동창회는 6월 13일(월) 2학기 활동 계획을 위한 임원 모임을 가졌다. 손문경(사회 82) 선교부장의 기도로 오찬을 시작한 임원들은 9월과 10월에 예정된 사회과학대 20주년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돋는 방법을 의논하고, 2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학과를 심리학과와 사회복지학과로 정했다.

한편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11대 회장에 이어 사과대 동창회를 맡을 차기 회장은 다음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광화문 오키친에서 오찬을 나눈 이날 모임에는 건강을 회복한 이양준(정외 70) 고문과 손문경 신임 선교부장, 오숙영(사회 77) 사회학과 신임 회장 등 10명의 각 과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양준 고문은 지난 겨울과 봄, 쾌유를 빌며 염려와 사랑을 보내준 여러 임원들에게 감사의 표를 표하며 이날의 오찬을 베풀었고, 모두 건강을 다짐하며 박수로 답했다.

7월 18일(월) 사과대 동창회는 장학기금 200만 원을 대외협력처에 기탁했다. 올해 장학금은 심리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각 1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된다. 사과대는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각 과 동창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음악대학

회장__임진(작곡 72)

6월 임원회의 및 특강

6월 29일(수) 대학원 별관 2층에 위치한 여성지도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음악대학 동창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자회, 2017년 뮤직 페스티벌, 30주년 음악회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선교 후원금과 2017년 올해의 이화인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김영의 선생님의 기일(11월 26일)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

한편 이날은 자연치유 전문가이자 영화배우 문숙씨의 특강이 있었다. 문숙씨는 자연식과 요가, 명상을 통해 우리 몸을 자연 치유하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강의를 해주었다.



문숙 씨의 특강 후 함께 자리한 음대 동창회 임원진들

의과대학

회장__오혜숙(의학 78)

제10차 동기회장 및 전국 지회장 정기회의

6월 18일(목) 2016년도 제10차 동기회장 및 전국 지회장 정기회의가 56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열렸다.

1부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각 기수별 동창들의 여행 이야기, 동창 행사 이야기, 학창 시절의 추억과 각 지회별 활동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35회 동창들의 30주년 여행 이야기부터 올해 학교를 졸업한 65회 신입 동창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오혜숙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2부에서는 새 병원 건축의 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화의료 원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만들어 선포식에 이르는 과정 등 병원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 의대 소식으로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인증평가 결과, 졸업 30주년과 50주년 행사, 작년에 치른 의대 70주년 행사 등 의대의 발전상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마무리로 새 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 현황을 발표하였다. 400명이 넘는 동창들이 참여해 벌써 90억 원 가까이 약정을 했다고 발표하자 참석자들은 ‘동창들의 놀라운 힘이자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7월 19일(화) 이화의료봉사회 쉼터 대표자 간담회가 임원 8명과 쉼터측 8명, 모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개비에서 열렸다. 강남 임시 쉼터 황철연 신부님의 기도로 시작, 오혜숙 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각 쉼터 대표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7월 26일(화) 저녁 7시에 18회 유신애(의학 69) 동창의 《아름다운 동행》 인터뷰가 달개비에서 있었다. 유신애 동창은 1969년 모교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병원에서 신생아학(Neonatology)



제10차 동기회장 및 전국지회장 정기회의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을 전공하고 후 헬스어라이언스 그룹 소아과과장 및 스탠포드 대학병원 소아과 임상교수로 근무하였다. 2001년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그곳에서 정년을 맞았고, 현재도 기독여자의사회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중이다.

8월 21일(일) 15회부터 40회까지 동창 32명, 8팀이 참여한 제7회 이화의대 동창 골프대회가 수원 컨츄리 클럽에서 열렸다. 특히 김지영(의학 89) 동창을 주축으로 6개월 동안 대회를 준비해온 38회 동창들은 32명 중 13명이 참석하여 든든한 동기애를 과시하였다. 이번 대회 진행을 담당한 38회 동창들의 기발한 제안으로 선후배를 섞어 조를 짰는데, 새로 시도된 기수 혼합 조 편성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덕분에 까마득한 대선배와 막내가 함께 라운딩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동창들이 골프대회에 참여하여 선후배 간 즐거운 교감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간호대학

회장__조혜숙(간호 76)

정기총회 및 8·28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

5월 11일(수)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간호학부 명예

교수, 교수, 동창, 학생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정애 선생의 62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이날 예배에서는 모교 명예교수 이자형(간호 70) 동창의 주도로 이화 간호의 역사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이정애 선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정애 선생은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 후 1928년에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 간호학을 전공한 한국인 최초의 간호사이다. 그는 1937년 영국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 한국 최초로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조선에도 조선인 간호사가 있음을 알렸다. 이자형 동창은 고 이정애 선생의 한국 간호의 선구자로서의 공로와 역사적 의의를 전하며, 이화 간호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동창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번 추모 예배는 이화 간호의 과거·현재·미래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5월 31일(화) 오전 11시 헬렌관에서 ‘제55회 동창회 정기총회 및 8회·28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8회(1966년 졸업) 동창과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28회(1986년 졸업) 동창을 포함, 약 90여 명이 참석해 간호대 동창 간의 공동체의식을 다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해외 동창 1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기총회 및 8·28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행사는 신주현(간호 00) 총무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유병국(간호 75) 선교부장과 동창들은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특히 간호대학으로 복원되었음에 감사하였다. 동창들은 의화의료원 마곡병원 홍보 영상을 보며 이화 간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올해의 이화인’ 정승은(간호 86) 동창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하였고, 졸업 30주년 및 50주년 동창들은 간호대 동창회에 간호대 신축 건물 기금을 전달하였다. 간호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창들의 끊임없는 관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졸업 30주년 및 50주년 동창들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 재학생들로 이뤄진 NFC가 <걱정말아요 그대>와 <야곱의 축복>을 불러 간호 동창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진향(간호 73) 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7대 간호대 동창회장으로 18회 조혜숙 동창이, 수석 부회장으로 김혜영(간호 76) 동창이 만장 일치로 선출되었다.

‘제55회 동창회 정기총회 및 8회·28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를 통해 이화 간호 속에서 선후배가 화합하여 하나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약학대학

회장__박하영(약학 77)

6월 정기임원회 개최와 약대 동창 소식지 발행

6월 16일(목) 11시 중남미문화원에서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화창한 날씨와 녹색의 싱그리움이 임원들을 반겨주는 듯했다.

박하영 회장의 인사와 서기, 회계보고에 이어서



중남미문화원에서 열린 6월 정기임원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동창들

약사부, 사업부, 지역부, 문화부, 선교부, 자료부의 보고와 약대 건축기금 현황 보고가 있었다. 오찬 후 중남미문화원 곳곳을 돌아보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한편 약학대학 동창 소식지 제34호 발행을 위해 5월 18일(수) 오전 11시 30분 정용희(약학 75) 전 회장과 박하영 회장을 위시하여 총 6명의 임원진이 1차 회의를 가졌다. 소식지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차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원고수집 방법 등을 의논하였다. 또한 발송대상자 주소록 관리를 총무에게 일임하였다. 2차 회의는 인쇄소 대표자와 임원진이 다시 만나 책자 발행을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과 예산에 대해 의논하였고, 전체적인 포맷과 목차에 따른 페이지를 분배하였다.

7월 14일(목) 1차로 나온 가책자를 보며 각 부부장들이 충동원되어 기사를 점검하고 사진 배열, 동창근황 등에 대한 수정 사항을 검토하였다. 7월 27일(수) 2차 가책자를 가지고 최종 교정 작업을 하였다. 총 발행부수는 3,000부로 책정했고 이 중에 2,950부를 동창들에게 발송하도록 의뢰하였다.

길고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소식지에 몰두하여 묵묵히 함께 협력한 임원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생활환경대학

회장—임정희(가관 79)

졸업 50·51주년 기념식

6월 16일(목) 아령당에서 생활환경대학 졸업 50·51주년 동창의 축하연을 가졌다. 지난해 메르스로 순연되었던 1965년 졸업 동창과 올해 50주년을 맞은 1966년 졸업 동창 및 1976년에 졸업한 40주년 동창이 함께 합동으로 한 기념식에는 80여 명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선후배 간 안부와 근황을 나누었다.

축하공연으로 아령해금악단의 해금 연주가 있었으며, 아령합창반의 <봄처녀>는 모두가 함께 부르며 즉흥 화음을 만들었다. 점심 식사 후에 아령당이 그려진 에코백을 기념 선물로 전달했는데 참석자들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격해 했다.

1965년 졸업 한옥순 동창, 1966년 졸업 이영자 동창이 기대표로 동창회 기금을 전달하며 아령회를 통해 더 좋은 만남을 이어가자는 기념사로 독려하였다. 교가를 끝으로 동창들은 꿈같이 흐른 시간을 아쉬워하며 아령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다.

선배들을 위해 마련한 축하연이 매년 이어지면서 공감대가 더욱 커지는 아령회를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날이었다.



아령당에 모인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__김혜정(72)

영학회 신임 임원단 구성

영학회의 전임 회장 이정숙(77) 동창이 임기를 끝마치고 김혜정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였다. 6월 21일(화) 회계감사를 마치고 고문 3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총 19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영학회 임원단이 출범하였다.

또한 9월 6일(화) 개최가 예정되었던 모교 바자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임원들은 아이템 선정차 8월 2일(화) 중남미문화원, 8월 16일(화) 남대문시장, 8월 20일(토) 남평화시장으로 무더위 속에 답사를 다녀왔다.

영학회는 10월 19일(수) 서울대 주경철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추계강좌를 열 예정이다



동창회 행사를 의논 중인 영학회 임원들

불어불문학과

회장__마송민(75)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그랑프리 수상

불어불문학과 아미합창단은 꾸준히 연습해 온 결실을 모교 대강당에서 발휘했다. 5월 30일(월) 이화창립 130주년 기념 감사찬양제에서 <사랑 모두 이기리(L'amour Triomphe de Tout)>를 불렀고, 5월 31일(화)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아리랑(Une Petite Rose sur Arirang)>을 열창하여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아미합창단은 전원 불어불문학과 동창생들로 결성되었으며, 2회 장명숙(62) 동창, 3회 김정희(63) 동창을 선두로 14회 박미해(74)·15회 마송민·한정숙(75) 동창 등 35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다. 합창제의 지휘와 반주는 음대 윤선영(성악 93)·호비야(건반 16) 동창이 맡아주었다.

불문과 동창회의 원활한 결집을 위하여 기별 대표



동창의 날 합창제에서 열창 중인 불문과 아미합창단

격인 불문과 간사 모임을 6월 15일(수)에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가졌다. 이날, 이화언론인클럽의 부회장 안나량(93, 『neighbor』 편집장) 동창이 참석하여 협회에 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하였다. 현재 이화언론인클럽의 회장 김현경(87, MBC 논설위원) 동창과 부회장 안나량 동창은 모두 모교 불어불문학과 동창이다.

조소과

회장__이선희(81)

다양한 전시회와 수상 소식



고 김봉구 교수님 회고전을 찾은 조소과 동창들

올해 유난히도 길고 무더운 여름, 작품 활동에 땀 흘리며 열정을 쏟는 동창들의 전시 소식과 수상 소식 덕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조소과 동창회는 6월 8일(수) 제29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을 수상한 이정자(66) 동창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일보미술관을 찾아가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7월 1일(금)에는 청주시립미술관 개관전 ‘여백의 신화 – 청주, 한국 현대미술의 기초 역사를 쓴다’에 다녀왔다. 이 전시는 청주 연고 작고작가 ‘김복진, 김기창, 박래현, 정창섭, 윤형근, 박노수, 김봉구’ 7인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을 모아 개최하는 회

고전으로, 동창들은 생전의 김봉구 교수님에 관한 추억을 나누며 고인을 기렸다.

의류직물학과

회장__최비숙(80)

제2회 EFCA전 개최

6월 8일(수)부터 6월 14일(화)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제2회 EFCA전(의류직물학과 동창 전시)을 개최하였다. 15명의 동창들이 회화, 사진, 공예, 캘팅, 염색, 뜨개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오프닝 행사에는 홍나영(81) 교수, 박민정(가관 99) 교수 외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사제 간, 동창 간 예술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많은 성원을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하는 뜻에서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길 다짐하였고, 제3회 전시를 기약하며 EFCA전의 마무리를 하였다.

제2회 EFCA전에 참가한 동창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혜영(70), 이혜자(70), 유혜자(77), 이정숙(80), 최비숙(80), 이옥희(81), 홍증옥(81), 박진미(82), 김미영(83), 유정희(83), 김정수(84), 조주원(88), 강지민(96), 김명희(97), 유지수(97).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제2회 EFCA전 전시장 풍경

남가주(LA) 지회

회장__장경해(피아노 75)

한여름 축제 성황리에 열려

7월 2일(토) ‘한여름 축제’가 Seal Beach의 Leisure World에서 열려 1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동창 한 명 한 명이 도착할 때마다 임원들이 화려한 하와이안 화환을 목에 걸어주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간 남가주 동창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역대 회장 양정남(간호 60)·고은주(영문 61)·김성자(교육 61)·민경남(불문 61)·김정순(간호 75)·장계원(문정 76) 동창 및 김영교(영문 63)·박화자(간호 66) 전 이사장이 행사에 참석하여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진행으로 열린 여흥 시간엔 동창회에서 초청한 Hawaiian Dance 팀의 지도에 따라 춤을 배우는 순서와 댄스 팀의 무대 공연이 있었다. 송정현(교육 57) 동창의 딸 Eleanor Han의 환상적인 독창과 양정남 동창의 솔로 댄스 공연은 특히 압권이었다. 임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풍성하고 맛있는 뷔페 식사 후 게임을 즐겼고, 이경희(섬예 78) 동창이 기증한 전기밥솥 3개가 3명의 동창에게 행운 선물로 증정되었다.

참석한 모두가 너무 행복해 하였고, 나이를 불문하고 이화가족은 한마음이라 생각하며 서로를 토닥이고 박수치며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오후를 보냈다.

7월 16일(토) 오후 4시에 가든스위트호텔에서 모교 최경희 총장의 남가주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 모임이 열렸다. 이날 만찬에는 8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지인혜(피아노 71) 동창의 반주로 교가 제창을 한 후에 장경해 회장의 환영사, 이수훈(화학 61) 동창의 기도에 이어 최경희 총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합창부(운영위원장: 박화자), 선교부(부장: 조남화, 간호 63), 녹미회(회장: 서정숙, 생미 79), 건미회(회장: 이윤주, 체육 84) 등 남가주 동창회 안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여러 모임의 단체장들이 활동 현황 보고를 하였다.

8월 7일(일) 오후 7시에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동문음악회가 6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모교 재학생 22명으로 구성된 이화챔버콰이어(지휘: 박신화, 반주: 김현지·작곡 15)가 남가주에 방문하여 주옥 같은 곡들을 연



한여름 축제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주하여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남가주동문합창단의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겸한 연주회였다. 37명으로 구성된 이화여대 남가주동문합창단은 안정화(성악 84) 동창의 지휘로 피아노 반주에 주희정(피아노 08) 동창, 오르간 반주에 장경해 동창이 수고하였다.

특별 출연한 박미자(성악 86) 동창의 소프라노 독창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환상적인 공연이었다. 양승경(관현 99) 동창과 윤희진 씨가 함께 연주한 바이올린과 하프의 아중주도 무척 아름다웠다.

또한 연주회 때마다 회환을 보내 연주회장을 더욱 빛나게 해준 김영주 총동창회장, 연주회를 위한 축하 인사 말씀을 해준 최경희 총장, 박회자 남가주동문합창단 운영위원장, 장계원 이사장, 장경해 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번 음악회는 이화여대 남가주동문합창단과 모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이화챔버콰이어가 함께하는 연주회라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모교와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뉴욕 지회

회장__박영숙(경영 86)

다양한 문화 행사로 돋보인 우의를 다져

3월 8일(화) 맨해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고 임기를 마감하는 김기령(영문 81) 전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창회를 이끌어 갈 새 임원진은 모교와 동창을 사랑하며, 의미 있는 동창회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4월 16일(토) 맨해튼 지역 모임을 필두로, 5월 11일(수) 스탠퍼드 아일랜드 모임, 6월 18일(토) 북부 뉴저지 모임 등 각 지역 동창 간의 우애를 다지는 지역 모임이



김성혜 동창의 집에서 바비큐 모임을 가진 뉴욕 지회 동창들

있었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인 '마취에 관한 상식(조연·약학 61 동창의 딸)', '감정조절(권혜경·정외 94, 심리학박사)'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5월 21일(토) 정기모임은 주제가 있는 뮤지엄 투어로 대체하였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속의 집을 재현한 실물이 설치된 루프탑의 전시를 비롯, 다수의 수작들을 전시 중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현지 큐레이터를 초빙하여 진지한 예술의 세계를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8월 13일(토) 바비큐 모임 겸 퀸즈 롱아일랜드 지역 모임이 김성혜(장미 85) 동창의 집에서 있었다. 이화의 사위들도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장학생 선발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독려, 최근의 모교 상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29일(월)에는 연례만찬(10월 29일)과 휴스턴에서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선보일 텔런트 쇼의 연습을 위해 박영숙 회장의 사업장에서 임원회의를 가졌다. 연습을 통하여 생겨나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동창회에 전하기로 뜻을 나누며 오랜만에 땀을 흘려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4월 12일(화)에는 모교 조기숙(무용 85) 교수 가 이끄는 UN Public Diplomacy Symposium, 5월 22일(일)에는 금난새 선생이 이끄는 Manhattan

Chamber Music Festival, 6월 14일(화)에는 UN 주최, Beautiful Mind 재단(대표: 모교 배일환 교수)의 콘서트, 7월 12일(화)에는 김선희(무용 81) 한예 종 무용원장이 이끄는 K-Art 발레를 관람하는 등 뉴욕 지회이기에 가능한 몇 가지 행사를 통해 동창 간의 우의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멜버른 지회

회장 __ 박성혜(기독 95)

중반기 모임 가져

멜버른 지회는 8월 10일(수) 김명희(가정 66) 동창의 집에서 중반기 모임을 열었다. 이날, 김명희 동창이 손수 담근 김치, 식혜, 석류주를 함께 나누며, 최근의 모교 사태에 대한 염려와 함께 다같이 손을 모아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향림(영교 75) 동창은 직접 그린 서양화를 지역 공동 장터에서 직접 판매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참석한 회원 모두 오윤미(피아노 04) 동창이 성공적인 피아노 독주회를 마친 것을 축하하였다.

예년에 비해 한층 더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멜버른의 겨울에 대해 얘기하며, 전례 없었던 한국의 여름 폭염에 대해서도 함께 염려하였다.



김명희 동창의 집에 모인 멜버른 지회 동창들

몬트리올 지회

회장 __ 김명원(수학 92)

부부동반 모임으로 친교 나눠

5월 28일(토) 샤브샤브 한식 레스토랑에서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13명의 동창이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밴쿠버로 이주하게 된 김동원(무용 71) 동창의 환송회를 겸하였는데, 김동원은 “그동안 선배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저녁 식사 후 이채화(무용 76) 동창의 사회로 유쾌한 오락 시간이 이어졌다. 넌센스 퀴즈와 여러 가지 기발한 게임으로 모두가 크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새 회장으로 김명원 동창이 선출되었으며, 그동안 동창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준 이채화 전 회장에게 동창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밴쿠버 지회

회장 __ 손귀순(문정 71)

하계 야유회에서 유쾌한 시간 보내

8월 5일(금) 버나비 휴 공원에서 동창들과 함께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이화의 사위들의 솜씨가 돋보인 LA 갈비 바비큐와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눈 뒤, 박혜정(관현 82) 동창 지도의 노래 교실, 넌센스 퀴즈 및 게임으로 유쾌한 친교를 나누고 다음 추석 모임을 기약하며 교가 제창 후 헤어졌다.

8월 13일(토) 탄자니아 불우 아동들의 교육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밴쿠버 시온선교합창단의 34주년 정기 공연이 써리시에 위치한 퍼시픽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화챔버콰이어(지휘: 박신화 교수)의 협연이 있었다. <주의 사랑 세상이 이기네> 외 3곡



하게 야유회에 참석한 밴쿠버 지회 동창들

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친양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별히 이화·동창들은 자랑스러운 이화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보스턴 지회

회장__박순혜(국문 73)

가족이 함께한 동창 모임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녹음이 우거진 6월 25일(토), 보스턴 지역의 동창과 동창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알아가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은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의 뉴햄프셔 주 Hooksett에 위치한 Youth Center에서 이루어졌다. 이 센터는 청소년들과 지역 사회 교민들을 위해 김지영(교육 82) 부회장과 진태원 사장 부부가 만든 곳이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낸 보스턴 지회 동창들

비록 배꽃으로 가득한 모교 교정은 아니었지만, 우리 동창 한 명 한 명이 배꽃 향기를 전하며, 그때 그 시절의 감동을 맛보았다. 푸짐한 음식,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학창 시절 즐거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체조를 하며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_곽정연(독문 76)

동창 산악회와 그룹 대화방으로 계속 다져

6월 4일(토) 12시 Newark에 소재한 일식당 니조 캐슬에서 18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희주(커미부 85) 동창이 동창회에 새로 나오게 되어 모두들 반갑게 맞이하였다. 모교 창립 1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보고가 있었고, 건강과 운동을 위한 ‘동창 산악회’를 만드는 것과 ‘동창 그룹 대화방’ 운영 예정을 발표하였다.

7월 9일(토) 12시 Oakland에 있는 한식당 오가네에서 22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다. 김영자(약학 57) 동창은 해외동창 백만불 모금운동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한 뒤, 앞으로 더 많은 동창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신입 동창으로 강윤숙(생명 92) 동창의 인사와 함께 선후배 간의 우정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8월 6일(토) 12시 Hillsborough에 있는 곽정연 회장의 집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모임을 하였다. 8월 생일을 맞은 김인자(가정 62) 동창의 식사 대접으로 동창들 모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서 휴스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할 동창들의 명단을 단체로 작성하였으며, 모교 사태에 대한 논의와 모교를 위한 기도 시간도 가졌다.

8월 27일(토) 오후 3시 30분에 곽정연 회장 집에서 이아람(관현 94) 동창이 단장으로 있는 쏘넷앙상블



곽정연 회장 집에서 열린 8월 정기모임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의 모금연주회가 있었으며, 500달러를 북가주지회 동창회에 기부하였다.

시드니 지회

회장__ 김봉희(서양 74)

시드니 비엔날레 관람

시드니 지회는 지난번 예고한 대로 New South Wales Art Gallery에서 시드니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모임을 가졌다. 조경화(사생 79) 동창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각종 미술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작품 감상 후 갤러리 맞은편 공원 안에 있



시드니 비엔날레 감상 모임을 가진 시드니 지회 동창들

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작품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다.

박인애(법학 55) 동창의 80회 생일을 맞이하여 작은 선물을 하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동창을 위로 하였다. 장기숙(사회 64) 동창이 수술을 하여 여러 동창들이 장 동창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8월 13일(토) 시드니에서 ‘한국영화축제’가 열려, 동창들은 오랜만에 한국영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태즈메이니아에 거주하는 윤세순(식 영 72) 동창이 참석해 모두들 반기워 했다. 윤 동창은 오랜 이민 생활을 글로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호주문화협회에 수필이 당선되었다. 윤 동창의 글은 만남과 인연의 소중함을 잘 표현하는 수작으로 호평받고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시드니는 9월부터 봄의 시작이다. 목련꽃, 철쭉꽃이 봄의 향기를 신고 온 것 같은 기분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도 추석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화’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신시내티 지회

회장__ 김영채(영문 59)

김영채 회장, 모교에 1만 달러 기증

작은 겨자씨 하나로 태어난 신시내티 지회는 매년 동창회비를 서울의 총동창회에 전달하고, 4년 약정한 ‘선배라면 장학금’도 마지막으로 국제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모교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백만불 장학금 모금운동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도미용(약학 56)·김영채(영문 59)·김선(외교 69)·배영자(커미부 69)·황은신(생미 70) 동창이다.

특히 김영채 회장은 “4년간의 이화 기숙사 생활이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멋진 열매로



신시내티 지회 5월 모임

익어가는 날들이었다”며, 이대기숙사 건축비로 1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항상 이화의 진선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겨자씨들이다.

싱가포르 지회

회장__조혜숙(영문 89)

하반기 모임으로 활기 띠어

긴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2016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싱가포르 지회 동창 모임이 8월 19일(금)과 9월 1일(목),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년 전부터 운영해 온 직장인 동창들의 저녁 모임은 8월 19일(금)



(위) 정기 낮 모임에 참석한 싱가포르 지회 동창들의 외인 건배
(아래) 저녁 직장인 모임에 참석한 동창들

저녁 7시 이탈리아 식당 Ricciotti에서, 비직장인들의 정기 낮 모임은 9월 1일(목) 낮 12시 Four Seasons Hotel에서 가졌다. 무더운 여름을 알차게 보내고 한 층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즐긴 시간이었다. 특히 하반기의 시작은 자녀들의 학기가 바뀐과 동시에 나라 간 이동이 많은 시기라, 여름 방학 시작 전에 몇몇 동창들을 떠나보낸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동창들의 입성으로 한층 활기를 띠는 모임이 되었다. 관심이 많이 가는 사회적인 이슈,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 외에도 소소한 생활 정보의 교환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골프 동호회와 트래킹 동호회, 월링하트 봉사활동 등에 대한 소개의 시간도 가졌다. 남은 2016년도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본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__장명옥(영문 81)

동창 가족 야유회로 푸짐한 사랑 나눠

6월 모임은 ‘Jones Bridge Park’에서 가족 야유회(남편도 참석)로 모였다. 정소영(영문 62) 동창의 개회 기도에 이어, 다같이 <참 아름다워라>를 부르며 시작했으며, 최인옥(체육 87) 동창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게임이 이어져 더욱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다소 더운 날씨였지만 미리 준비한 Fan, 시원한 수박 그리고 널찍한 Pavilion 옆에 흐르는 강물로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불고기를 구워준 남편들, 과일과 떡, 참가상(치약)을 후원해준 동창들 덕분에 푸짐한 사랑과 정성을 나눌 수 있었다.

7월 모임엔 각 부 활동보고가 있었다. 합창부(부장: 이해선, 피아노 64)에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가할 합창 연습이 한 달에 두 번 있으며(지휘자: 이미애, 성악 89, 반주자: 윤미영, 피아노 84), 골

프부(부장: 차희숙, 체육 77)에서는 10월 3일(월) Northwood Golf Club에서 열릴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배 골프토너먼트에 대한 광고가 있었다. 8월 모임에서는 휴스턴 총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참가신청서를 받아 성정순(체육 49)·김인자(사생 53입) 동창 등 총 12명의 동창이 참가하기로 했다. 8월이 생일인 동창들을 축하하고, 신입 회원 서정주(교공 75)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8월 13일(토)에 열린 ‘한미장학재단남부지부’ 장학금 수여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우리 지회에서는 매년 한 명의 학생에게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올해는 Music을 전공하는 Floria Kim (University of North Georgia)이 선정되었으며, 김영예(의학 51입), 김순희(법학 66), 홍정자(의학 66), 장공근(기악 67), 박영애(서양 70), 장명옥(영문 81) 동창이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7월 모임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에드먼턴 지회

회장__조용옥(국문 73)

동포 시인들의 시와 노래의 만남

8월 13일(토), 에드먼턴 지회는 독일에 거주하는 김영식 작곡가를 초청해서 이곳 동포 시인들의 시와 노래가 만나는 ‘캐나다 한인 창작 가곡 음악회’를 주관하였다. 캐나다 동포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가곡



‘캐나다 한인 창작 가곡 음악회’를 주관한 에드먼턴 지회

으로 만들어 발표한 이 행사는, 준비기간만 5~6년 걸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이 음악회를 위해 신문 사두 곳의 후원을 받았고, 특별히 김윤(한음 07) 동창이 적극 후원을 해주었다. 이 밖에도 많은 선배 동창들이 용기를 주었기에, 이화 동창회의 지회장으로서 음악회를 주최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임했다. 하나님에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들에 감사하며 성공리에 음악회를 마칠 수 있었다.

금년 여름 모교에서 어지러운 시간이 잠시 있었지만 더욱 멀리 뛰는 발판이 되어, 힘을 모을 수 있는 고국과 북미의 동창 모임이 될 것을 믿는다.

오타와 지회

회장__최영아(문정 85)

정기총회 개최와 네 차례의 여름 모임

오타와 지회는 5월 14일(토) 염경자(약학 67) 동창의 집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은신(수학 82) 동창의 기도를 시작으로, 임원진이 행사보고와 회계 보고를 한 후, 좀 더 나은 동창회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안건을 토의했다. 그동안 회계로 수고하던 조수진(독문 05) 동창이 텍사스의 댈러스로 가게 되어 간단한 송별식을 하고, 수술 등 각종 어려움에 처한 동창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합심기도와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을 힘차게 부른 후 각자 한 접



5월 정기총회에 참석한 오타와 지회 동창들

시씩 준비해 온 음식으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6월 5일(일)에는 한영아 동창의 별장에 모여, 현재 베를린 등지에서 설치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숙 (섬예 79) 동창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7일(화)에는 오타와에서 함께 지내다가 선교를 위해 현재 터키에서 거주하고 있는 심숙경(약학 86) 동창이 오타와에 방문하여 박은경(장미 85) 동창의 집에 모였다. 심 동창은 테러의 위협이 점점 심해져 가는 터키 현지의 사정을 동창들에게 들려주었다. 7월 23일(토) 오전에는 오타와 외곽의 식당에서 브런치 모임을 갖고, 인근에 위치한 차정자(수학 67) 동창의 집으로 이동하여 수술 후 회복 중인 차 동창 부군을 병문안하였다.

8월 20일(토) 밤에는 오타와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영아 동창의 콘도에 모여 근접한 곳에서 열린 Fire Works Festival의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를 나눴다.

울산 지회

회장__안진희(관현 76)

지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 개최

5월 19일(목) 울산 롯데호텔 샤롯데홀에서 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

다. 반현진(작곡 94) 동창의 기도로 시작하여 모교 교수 최경실(장미 84) 동창의 ‘경영 마인드와 색채 디자인’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의가 있었다. 또한 축하 공연으로 모교 성악과 김상곤 교수와 서희수(성악 04) 교수의 <오 솔레미오>와 <축배의 노래>의 열창이 있었다.

안진희 신임 회장은 울산 지회 동창들이 더 화합하여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실천하자며,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라는 『삼국사기』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 말의 의미를 잘 되새기며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기원하였다. 퀴즈와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들을 나 눈 뒤에 교가 제창으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5월 정기총회를 개최한 울산 지회

워싱턴DC 지회

회장__김성혜(보교 88)

하반기 동창회 행사 의논

6월 10일(금) 워싱턴DC 지회 임원들은 상반기에 진행한 행사와 사업에 대한 결산 및 하반기를 위한 계획과 진행할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Sunshine Committee는 계속하여 무더운 여름 동안에도 아프거나 병중의 동창들에게 Get Well 카드

를 보내어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였다.

워싱턴DC 지회에서 지급하는 이화국제하계대학 장학금을 받은 3명의 학생은 2016년 여름 동안 이화 하계프로그램에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보낸 후 워싱턴DC 지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임영미(유교 83)

특강과 함께 유익한 시간

6월에 인명숙(약학 73) 동창의 집에서 오찬을 나누었다. 이날, 현재 모교 의대에 재직 중이며 단기로 Cleveland Clinic에서 연구 중인 박영미(의학 96) 동창이 ‘의과학’ 이란 학문의 연구 동기와 목적에 대해 강연해주어, 그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7월에는 이화의 대선배인 이숙자(영문 47) 동창의 Memorial Service에 동창들이 참석하여 자랑스런 이화인으로서 미국의 대학에서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던 고인을 기억하며 명복을 빌었다.

8월에는 Cuyahoga Community College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문성애(생미 81) 동창의 집에서



인명숙 동창의 집에 모인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Design & Art as a Hobby’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파리 지회

회장__홍성부(생미 84)

재불 이화가족 봄맞이 피크닉 개최

6월 4일(토) 뱅센 숲에 위치한 파크 플로랄 드 파리 (Parc Floral de Paris)에서 봄맞이 이화가족 피크닉을 개최하였다.

봄 피크닉은 겨울 송년 모임과 더불어 파리 지회의 주요 연례행사 중 하나로, 임원진들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행사이다. 회장 홍성부 동창을 중심으로 각 임원진들이 다양한 한식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새벽에 내린 비로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다행히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아 예정대로 오랜만에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담소와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

임원진을 비롯한 이화인 및 가족 등 총 32명이 참가한 올해 행사는 점심 식사 나눔으로 시작되었으며, 윤애영(서양 88)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레크레이션 이 즐거운 만남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원진이 준비한 경품 추첨 행사 역시 인기였다.



봄맞이 피크닉에 참가한 파리 지회 동창들

포틀랜드 지회

회장__김미진(도예 79)

바닷가 거닐며 여유 즐겨

포틀랜드 지회는 6월 5일(일)에 오랜만에 바닷가에 다녀왔다. 조금 쌀쌀하긴 했지만 모처럼의 나들이에 모두 소녀처럼 즐거워했다. 예쁜 식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점심을 먹고, 한 시간 가량 맨발로 바닷가에서 젖은 모래를 밟으면서 신나게 놀았다. 거의 70세 전후의 선배들은 좋은 행사를 기획했다고 후배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지회는 자주 모이지는 않지만, 10명 정도의 선배 동창으로 이루어진 소그룹 모임은 항상하고 있기에 급할 때는 그 모임에 참석하여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푸르디푸르고 높디높은 가을 하늘을 맞이하면서 연말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 모임에는 더 많은 동창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바닷가로 나들이 다녀온 포틀랜드 지회



꽃꽂이 모임 후 각자의 작품 앞에 앉은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을 가졌다. 그동안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나온 선배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고, 함께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만나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들, 즉 이화라는 공통 분모와 살아가면서 축적되는 경험, 깨달음, 지혜들은 어디서 도들을 수 없는 우리들 모임의 에센스인 것 같다. 각자 창의력을 발휘해 만든 ‘작품’ 앞에 앉은 선배, 후배 동창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웠다.

7~8월 여름 방학 동안, 그동안 숙원이던 오래된 동창주소록을 업데이트하였다. 참여하고 도와준 모든 동창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준 김영애(국문 62) 동창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9월에는 남광선(식영 76) 동창의 부군인 정형외과 전문의 문대옥 박사에게 ‘손과 손목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긴 여름을 끝내고, 가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었다. 항상 아낌없이 도와주는 여러 선후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_김선주(국문 72)

꽃꽂이와 함께한 모임

6월 13일(월) 라이라이 레스토랑에서 꽃꽂이 모임

하와이 지회

회장__이혜련(영문 84)

1년에 세 차례 모임 갖기로

4월 30일(토) 한국음식점 서라벌에서 하와이 지회

동창 모임을 갖고, 총 18명의 동창이 모여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하와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과(Communicology) 부교수인 이혜은(통계 00) 동창이 'Culture and Communication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라는 제목으로 재미난 강연을 해주었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마친 우리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에게 마음에 꼭 와 닿는 예들과 함께 하루 하루 일상 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팁들을 나눠준 이혜은 동창은 가을 학기부터 모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 부교수로 가게 되었다.

강연 후에 맛난 음식을 먹으며 동창 모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앞으로 1년에 세 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을 때 번개 모임도 가져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회 모임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낸 하와이 지회 동창들

휴스턴 지회

회장__김명옥(경영 75)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총력을 기울여
휴스턴 지회는 11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열릴 예정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원들과 휴스턴 동창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북미 주 각처에서 오는 동창들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의학 세미나, 한방 세미나, 라인댄스, 합창 및 다채로운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동창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표는 선택 사양).

11월 3일(목) :

- 총회 등록

11월 4일(금) :

- * Museum Tour : Natural Science Museum, Museum of Fine Art(휴스턴 동창회에서 기증한 고려 청자가 있는 곳)
- * George Ranch Historical Park(옛 서부 텍사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장소)
- * 건강 세미나
- 총장님과의 만찬

11월 5일(토) :

- * NASA 방문
- * 의학 한방 미용 등 다양한 세미나
- Grand Banquet

11월 6일(일) :

- 예배
- 총장님과의 대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가 한창인 휴스턴 지회 동창들

황종례(서양 50) 동창

황종례 동창은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8월 26일(금)부터 2017년 1월 29일(일)까지 특별기획전 ‘오래된 미래, 황종례’를 열고 있다. 한국도자재단에서 주최한 이번 전시에는 황종례 동창의 작품 50여 점을 중심으로 황 동창의 부친 황인춘 (1894~1950) 작가의 작품을 포함 총 11명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황종례 동창

박영애(영문 57) 동창

미국에 거주 중인 박영애 동창은 2007년부터 매년 고국을 찾아 OMS선교회(One Mission Society)의 Adventures In English 여름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신학대와 OMS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와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박영애 동창

윤정자(영문 64) 동창

미국 덴버에서 개최된 제3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미국 대통령 봉사상 ‘교육 부문’ 금메달을 수상했다. 윤정자 동창은 트렌顿 한국학교(주말한국학교)에서 교사와 교장



윤정자 동창

으로 21년간 봉사해 오고 있다.

이정자(조소 66)·이선희(조소 81)·최승애(조소 85)·김선영(조소 89)·김정연(조소 89)·김양선(조소 94)·조은희(조소 94) 동창

7월 20일(수)부터 24일(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열린 ‘PLAS 2016(조형아트서울 2016)’ 전에 참가하여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 한 이정자 동창은 6월 8일(수) 제 29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을



이정자 동창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한국구상조각회 회장, (사)한국 전업미술작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 횃불갤러리 고문 및 운영 위원, (사)한국조각협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조영무(가정 66) 동창

미국 텍사스 주 플라노에 살고 있는 조영무 동창이 이화국제재단에 10만 달러(1억 원)를 기부하여 조영무-김옥균장학기금을 조성하였다.



조영무 동창

이원영(생미 68) 동창

30여 년간 플라워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이룬 성취를 모아 발간한 책 『Wonness』로 세계적인 도서상인 ‘에릭 호퍼 북 어워드’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꽃과 식물



이원영 동창

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역작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경희(성악 69) 동창

전 국회의원 최경희 동창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더케이 호텔앤리조트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최경희 동창

한인영(사복 72) 동창

서울복지재단 이사장이자 모교 명예교수인 한인영 동창이 6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사회복지대회의 IPC 의장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였으며, 개회식에서 Global Agenda를 발표하였다.



한인영 동창

장필화(영문 74)·김은실(영문 80)·이현욱(사회과교육 02) 동창

전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장필화 동창과 한국여성연구원 원장 겸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김은실 동창이 6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태국 방콕에서 여성학 공동연구개발워크숍 ‘아시아 지역 젠더 정의와 민주주의(Gender Justice and Democracy in Asia)’를 개최했다.

이번 태국 워크숍에는 모교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인 이현욱 동창 외 다수의 연구원이 참여하였



장필화·김은실 동창



이현욱 동창

고, 아세안 대학네트워크 대표 난타나 가자세니,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지지 알폰소, 아세안 사회문화국 부국장 아비가일 란세타, 타마삿 대학교 평화정 보센터 소장 차이왓 시타야난다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명란(도예 75) 동창

수원대 공예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명란 동창이 한국여류도예가협회 회원들의 전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8월 서촌에 KWCA 갤러리를 오픈하였다. 김동창은 2014년 한국여류도예가협회(KWCA)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아 국제교류전,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김명란 동창

고혜숙(조소 77)·김희경(조소 79)·정수안(조소 84)·최승애(조소 85)·김선영(조소 89)·김정연(조소 89)·김양선(조소 94)·조은희(조소 94) 동창 6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6 ‘조각, 감성을 깨우다’ 전에 참여하였다.

채영주(화학 77) 동창

7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뉴저지 주 프린스턴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채영주 동창은 37년간 연구원으로 재직 후 유화 작가로 전향했다.



채영주 동창

김영란(조소 79) 동창

6월 1일(수)부터 11일(토)까지 장은선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끌림–Attraktion’을 개최하였다.

김희경(조소 79) 동창

6월 25일(토)부터 7월 21일(목)까지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Ponzetta Gallery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임정희(가관 79) 동창

임정희 동창이 제4기 대통령직 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임정희 동창

황혜진(국제사무 79) 동창

9월 2일(금)부터 11월 6일(일)까지 열리는 제11회 광주비엔날레의 행사 주무를 맡은 모교 교수



황혜진 동창

황혜진 동창이 8월 24일(수) ‘문화예술 후원의 개념을 바꾸는 8·24 광주 아트파티’를 열었다.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후원 방식을 공개적인 활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다.

민병주(물리 81) 동창

전 국회의원 민병주 동창이 모교 기초과학연구소 초빙교수가 되었다.



민병주 동창

한성옥(서양 81) 동창

한성옥 동창이 지난 6월 출범한 그림책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한성옥 동창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김미혜(사복 79)·한자경(철학 81)·전혜숙(영문 83)·차희원(커미부 84)·김안나(영교 87)·정순둘(사복 89)·오은진(영문 90)·김수연(행정 95)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동창들의 저서 및 역서가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도서는 김미혜·정순둘 교수의 『한국 베이비부머의 삶과 미래』(학지사), 한자경 교수의 『선종영가집 강해』(불광출판사), 전혜숙 교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미술』(아카넷), 차희원 교수의 『기업 명성과 커뮤니케이션』(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안나 교수의 역서 『세계 문화와 학교 교육의 미래』(교육과 학사), 오은진 교수의 『외국어 음성 체계』(한국문화사), 김수연 교수의 『유(遊)의 미학, 금오신화』(소명출판)이다.



김미혜 동창



한자경 동창



전혜숙 동창



차희원 동창



김안나 동창



정순둘 동창



오은진 동창



김수연 동창

조영주(의학 84)·김민혜(의학 05) 동창

조영주, 김민혜 동창이 ‘유럽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 학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천식 환자에서 혈청·객담 내 인터류킨 33 사이토카인 농도와 객담 염증 세포 및 폐 기능 과의 관련성’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영주 동창



김민혜 동창

김애령(사회 85) 동창

전북연구원 신임 여성정책연구 소장에 김애령 동창이 선임되었다. 김동창은 여성가족부 여성 정책국 정책개발담당관, 국무조정실 과장, 돌봄사회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김애령 동창

이정원(조소 85) 동창

6월 28일(화)부터 7월 3일(월)까지 개인전 ‘Reason of Existence’을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열었다.

조기숙(무용 85) 동창

모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기숙 동창이 <춤과 물리학의 대화(Dance & Physics)>를 사라 데머 예일 대 물리학과 부교수와 공동 기획하였다. 6월 23일(목) 모교에서 열린 이 공연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물리학과 발레의 융합 공연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조기숙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8월부터 Tumom Sands Plaza Guam의 초대로 Sand Plaza Art Gallery에서 24개의 작품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남연숙 동창

백혜성(기독 87) 동창

백혜성 동창은 부군 김동해 비전 케어 이사장과 함께 7월부터 8월까지 약 8주에 걸쳐, 남아공부터 우간다까지 동남부 아프리카 9개국을 오토바이로 종단하면서 백내장 환자들을 수술하고 안질 환과 실명 위기를 알리는 등의 아프리카 실명구호활동을 하였다.



백혜성 동창

윤혜신(기독 88) 동창

『자연을 올린 제철밥상: EBS 최고의 요리비결 윤혜신의 구황 작물로 만드는 101 건강 레시피』와 동화책 『꽃할배』를 출간하였다. 윤혜신 동창은 궁중요리와 건강 요리 전문가로 다수의 요리책을 발간하였다.



윤혜신 동창

이수정(조소 88) 동창

2016년 8월 28일(일)부터 10월 13일(목)까지 명선 교회 내 우모하갤러리에서 기획초대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수정 동창

안진희(행정 93) 동창

안진희 동창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전북본부장으로 6월 30일(목) 부임했다. 안 동창은 1988년 전북본부가 문을 연 이후

첫 여성 본부장이다.

신영희(정외 94) 동창

신영희(Jamie Sheen) 동창이 대표로 있는 naisA는 7월 20일(수)에 ‘Engaging the Next Generation of Asian Leaders’란 주제로 미국 내 교포 및 아시안 차세대들을 위한 Career Networking Event를 가졌다. naisA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아시아의 젊은 전문 직업인이 그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비영리 교육단체다.

강애피(사회과교육 97)·조나혜(대학원 13) 동창

6월 3일(금) 안양대학교에서 열린 ‘2016년 한국공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애띠 동창은 ‘트윗에서 추출한 스트레스 감성과 토픽 모델링’을, 조나혜 동창은 ‘로그데이터의 시공간적 분석 및 시각화 연구 동향 분석’을 주



강애띠 동참



조나혜 동참

이지은(주소 97) 동차

2016년 7월 28일(목)부터 9월 3일(토)까지 스페인
스페인 696-19에서 개인전 ‘사라질 점, 사라진 점, 무심
하게 벽을 어루만지다’를 개최하였다.

정재은(작곡 99) 동창

8월 21일(일) 8시 대전예술의전당 야외원형극장에서 <창작오페라 나인테일즈, 구미호>라는 작품을 발표하였다.



정재은 동창

전애진(행정 00) 동장

전애진 동창이 안양세무서장에 취임하였다. 전 동창은 6월 30일(목)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애진 동창

김순임(조소 02) 동창

8월 26일(수)부터 10월 30일(토)까지 인천 아트플랫폼 야외 전시장에서 ‘땅이 된 바다—굴 땅’ 초대 개막전을 열고 있다.

박경록(건축 04)·이소정(건축 14)·장수원(건축 14)·신혜리(건축 15) 동창

5월 25일(수) 서울연구원 주최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모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장애물 없는 서울시 만들기 연구모임’을 구성해 아이디어 기획, 정책 제안 등 현장성 있는 연구로 서울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바결로 도착

이소정 도

자수원 도착

서예리 도착

탁경은(국문 05) 동창

탁경은 동창이 소설『싸이퍼』로
‘사계절문학상’ 대상을 수상하
였다.『싸이퍼』는 힙합하는 청소
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랩 스타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탁경은 동창

조은빛(국제학부 09) 동창

다수의 미술랑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조은빛 동창이 방배동 서래마을에 ‘Flower Child’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하였다.



조은빛 동창

박소연(건반 11) 동창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소연 동창이 6월 12일(일)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 슈탐베르크에서 열린 국제오르간콩쿨에서 1위를 수상했다.



박소연 동창

박지현(대학원 11) 동창

5월 30일(월) ‘제13회 신진작가 발언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월간 《미술세계》가 주최한 ‘신진작가 발언전’은, 본선 전시와 순회 전시를 거쳐 2016년 대상 후보작가 5인의 결승 전시를 진행했으며, 미술평론가 윤진섭, 최태만, 반이정 씨 등 다수 미술평론가들의 심사를 바탕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박지현 동창

강현정(불문 13)·강세린(화학-나노과학 15)·조정민(불문 16)·최지혜(화학-나노과학 16) 동창

2016년 프랑스 정부 장학금 ‘블레즈 파스칼(Bourse Blaise Pascal)’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주한 프랑



강현정 동창

강세린 동창

조정민 동창

최지혜 동창

스대사관에서 선발하는 블레즈 파스칼 장학금은 프랑스 고등교육기관 석·박사로 진학하는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에 선정된 국내 총 14명의 장학생 중 4명이 모교 동창이다.

박현아(교육 13)·김한나(대학원 15) 동창

6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6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박현아 동창이 우수상을, 김한나 동창이 교육학 박사학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박현아 동창

한국교육학회는 국내 교육학계 최대 규모의 학회이다.

김여진(컴공 14) 동창

7월 14일(목) 설악 대명 빌피노리조트에서 열린 ‘2016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학술대회(KCGS 2016)’에서 석사논문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최고 권위의 그래픽스 학회이다.



김여진 동창

이태리(중문 15) 동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2016년 KIEP 한중교량(韓中橋梁) 프로젝트’에 최종 선발되었다. 한중교량 프로젝트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라는 의미로, 실무형 해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KIEP (KIEP Emerging Economies Pathfinder) 프로젝트 핵심 사업이다.



이태리 동창

권효경(대학원 16) 동창

6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열린 '제17차 한국조직공학·재생 의학회(International Meeting of Korean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Society)'에서 우수구두발표상을 수상했다.



권효경 동창

서여주(대학원 16) 동창

6월 17일(금) '2016 한국소비자 정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서여주 동창의 연구는 CCM 인증제도에



서여주 동창

대한 새로운 분석 접근 및 제도의 실질적인 확산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손세린·신정훈(사회과교육 16) 동창

7월 7일(목) '2016년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선발된 석·박사과정생에게는 2~3년간 연간 75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장학금이 주어진다.



손세린 동창



신정훈 동창

2016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이화인들을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화인의 밤' 행사는 우리가 이화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선후배, 동기동창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즐겁고 기쁜 송년의 밤입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과 함께 멋진 음악회와 풍성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켓은 각 대학, 과, 학부 동창회에서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28일(월) 오후 6시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 02-3277-3386~7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아흔 무렵에 김현자(영문 49)

김현자 지음 / 신양과지성사

- 김현자 동창이 수상집『아흔 무렵에』를 출간하였다. 1부에는 수필반에서 문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글을 실었으며, 2부에는 오랜 인연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한 글을 받아 실었다.

**사계 : 비발디** 조영숙(성악 57)

조영숙 지음 / 문학관

- 조영숙 동창이 수필집『사계 : 비발디』를 펴냈다. 이 수필집은 '내 영혼의 비상' '비발디 사계' '숲속의 여주인' '찬양'의 4장으로 구성되었다.

**건반 위에 핀 호아꽃** 한옥수(음악 60)

한옥수 지음 / 책만소

- 피아니스트 한옥수 동창이 자신의 인생 역정과 후배 음악인들을 위한 조언을 담은 산문집을 펴냈다. 한 동창은 롱아일랜드 음대에서 7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 1973년 귀국해 30년간 단국대에서 후학을 길렀다.

**도리화가** 강주자(국문 66)

강주자 지음 / 월간문학출판부

- 『도리화가』는 강주자 동창의 두 번째 작품집이다. 「도리화가」를 포함하여 연극에 대한 열정으로 꾸준히 써온 장막극과 단막극 7편을 담고 있다. 「도리화가」는 조선 후기 판소리 이론가이자 비평가였던 동리 신재효의 삶을 담아낸 장막극이다.

**소음과 분노** 서숙(영문 68)

서숙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전 모교 교수 서숙 동창이 자신의 강의록을 소설별로 엮어 펴내는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모더니즘 소설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윌리엄 포크너의 대표작『소음과 분노』에 관한 강의를 담고 있다.

**씨 뿌리는 계절** 조용옥(국문 73)

조용옥 지음 / 문학의식

- 조용옥 동창이 시집을 출간하였다. '쓸아지는 별', '씨 뿌리는 계절', '고향 길', '여름날', '윈드미어 집', '삼청동' 등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DMZ의 평화: 달, 그림자** 김옥이(간호 74)

김옥이 지음 / 안전나라

- 1975년 도미하여 30여 년간 간호사로 일한 김옥이 동창이 틈틈이 썼던 글을 엮어 완성한 소설이다.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다.

**중국인쇄사** 강영매(중문 86)

장수민(張秀民) 지음 / 강영매 옮김 / 세창출판사

- 강영매 동창이 한국연구재단의 명저번역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중국인쇄사』 전 5권을 번역 출간하였다. 이 책은 중국 인쇄술의 기원과 발전, 전파, 그리고 모든 판각본과 인쇄본 등을 다루고 있다.





책임과 약속을 다하는 트래콘건설

TRACON은 " TRADE (고객) + CONFIDENCE (신뢰) "로
고객에 대한 책임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이념입니다.

트래콘건설은 1993년 설립이래로 건설시공에 주력해 온 종합건설회사로서
특히, 병원 등의 의료시설과 업무용빌딩, 호텔, 공장 및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
하이테크건축분야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트래콘건설
TRACon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7 한동빌딩 (우 06239)

TEL : 02-558-5440 FAX : 02-558-2950 E-mail : tracon@etracon.co.kr

www.tracon.com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동창회비는 동창회의 여러 가지 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에서는 동창회보 발간, 모교 기부금, 장학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평생회비(또는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 연회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회비 납부가 어려운 동창은 기존의 연회비 납부(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통해 총동창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50만 원 – 2016년 기준 만 60세 미만
30만 원 – 2016년 기준 만 60세 이상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지로 입금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http://www.ewhaalum.or.kr>

많은 동창들이 기다리던 총동창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총동창회의 다양한 행사 일정과 동창들의 근황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을 위한 모교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난호 《이화동창》도 언제든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 알립니다 앞으로 《이화동창》 회보는 1978년 이전 졸업자에 한해 발송해드립니다. 이후 졸업한 동창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동창회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동창에게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이화동창》을 보내드립니다).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